朝鮮日報
夕刊
十八日(水)
本紙朝夕刊十二面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印刷人 崔益進
發行所 朝鮮日報社

國境問題에對하야 蘇大使自說固執

約四時間半동안議論反覆코 有田『유』會談無成果

【東京電話同盟】駐日蘇聯大使유레니에프氏는 十七日午後三時外務省에 有田外相을 訪問하고十六日에 繼續하야 國境問題에關한 重要會談을 遂하엿다 有田外相으로서는 要컨대 接近實示하고잇는 紛爭委員會構成 紛爭國境劃定의 全線主義 紛爭委員會에잇서 事件의 種類等 三點을 此際 대번에 大綱만이라도 決定하고 東鄕리이비트專門家會議에 移牒하야 協定案文作成할것과 또 蘇聯側은 猜疑的態度를 是正하고 虛心坦懷로 交涉에 臨하도록 要望하엿스나 유레니에프大使는 如何한 確信을 가짐이지 右三點의 微細한點에 對하야 自說을 强硬히 固執하고 讓步치안흠으로 外相은 一一히 그論을 指摘하야 應酬 同七時半까지 約四時間半에 亘하야 議論을 거듭하엿스나 依然進捗되지안흔바 蘇聯側은 本國政府의 請訓을 仰하기로되여 會見은 決裂된채로 散會하엿다

第二次五相會議

【東京電話同盟】地方行政及議會制度改革에關한 第二次五相會議는 十七日午後二時부터 內相官邸에서 開會되엿다 潮、林、馬場、小川、永田의 五閣僚出席、爲先前回의 協議에 基하야 永田法制局長官으로부터 議會制度에關聯한 議院制度、選擧制度、貴族院制度 三調査會의 審議經過를 說明하고 同時此等調査會에提出한 各種의 參考資料를 出席閣僚에 配布한後 第一次會議時 潮內相으로부터 說明한 地方行政機構改革問題를 中心으로 意見交換을 行하야 馬場藏相도 地方經濟行政改革問題에關하야 意見의 開陳이잇고 永田拓相으로부터 滿洲國協和會에關하야 說明을할 豫定이다

上海日本人紡績 罷業더욱擴大

豊田紡績職工、警官과小衝突 總領事館當局大緊張

【上海十七日發同盟】上海西部日本人紡績의 罷業은 內外綿으로부터 다시豊田紡織에 飛火하야 十七日夜六時 交替時間에 際하야 豊田紡織第一 第二兩工場職工約四千名에 不穩한 形勢가보임으로 會社는 即時工部局警察及 中國公安局의 來援을 求하야 職工을 監視하고 工場을閉鎖하엿다 工場에서 몰려난 職工은 附近街上에서 警官과 小衝突을 이르켜 喊聲을 지르며 投石하는等 暴動化하려함으로工部局警察은 非番警官의 非常召集을 行하야 目下 嚴重警戒中이다

【上海十七日發同盟】豊田紡織第一工場에서 追出된職工은 十七日午後六時頃 第二工場에 殺到하야 鐵網을끈코 工場內에侵入하야 約三十分間 暴行을加하고機械器具를破壞하엿슴으로 工部局警官隊는 應援을어더 暴行職工을 全部工場內로부터 街頭로追出하엿다 그리고 工場侵入에際하야 煽動者비슷한사람도 混入되여 背後에何者가 存在한것이 明瞭하게되엿슴으로 總領事館當局은 極度로 緊張되여잇다

【上海十七日發同盟】上海東部日本人紡績의 罷業의一段落과 前後하야 西部日本人紡績의 形勢가 惡化하야 各工場은 모다嚴重警戒中이나 今朝에 다시 內外棉第二工場에 罷業이 波及되엿다 會社는 十七日午後二時에 決하야 나머지職工全部를 歸宅케하고 工場을 封鎖하엿다 午後六時 交代時間 紡績部는 過半數의 出勤을 보앗스나 罷業을 開始한 織布部의 女工은出動이 겨우 八名뿐으로 再次停業을 不得已하게되엿다 內外棉第一工場도 明日午後가장 危險하다고 보여 더욱濃厚하다 大되形勢가 相當히 濃厚하다 그리고
一、內外棉에서는 去十三日各工場을 通하야 賃銀五分引上을 發表한것
一、從來에는 單純한 意味에 不過하엿스나 今回에는 職工이 約五十錢에 亘하야 絲를切斷하야 積極的 妨害를 行한것
一、工場의 中樞部를 不意에 襲擊한것 이되다 치고 다른部內도 停業을 不得하게한것
等點으로보나 今回의罷業은 單純한賃銀引上要求 其他보담 惡質의鬪爭의 氣勢를帶한것이라고觀測된다 學生비슷한사람이 煽動하는形跡이 잇슴으로 會社側及 工部局當局은 警戒를 嚴하게하엿다 그리고 豊田紡織第一工場의 暴行을 免한것은 同工場內에 逆襲隊分遣等 注意를 與하고 同十一時十分 散會하엿다

▲▲空襲下의마드리드▼▼

西班牙動亂의 慘禍는 날이갈수록 深刻化하여간다。不斷히 實行되는 叛軍爆擊機의空襲下에서 단잠을 못자는 마드리드市民의 恐怖와不安은 叛軍의 進擊이 猛烈하여질수록 더하여가고 政府軍의 防備가 優勢하여가면 조곰 한숨내려쉬인다。寫眞上은 大마드리드市의 一部에 爆彈이 떠러진 悽然한光景、下는 空襲을避하야 地下避難室로 몰려드는市民들

綏遠形勢重大化

蒙古軍과激戰코綏遠軍待機 蔣介石氏、太原에飛來!

【上海十七日發同盟】中國側情報에依하면 綏遠蒙古軍騎兵一個旅及步兵一個大隊는 十七日紅格爾圖北方 小井子 高煙筒附近에서 때마츰進襲하여잇는 綏遠軍과激戰을交하고 十七日正午 아즉도 勝敗가 決定되지안허 待機中이다 그리고 紅格爾圖陣地爭奪戰에잇서 蒙古軍騎兵旅長朱恩氏外 數名의將校七名은 戰死하고 綏遠軍에도 死傷者를내엿다고傳한다

【太原十八日發同盟】綏遠方面의 形勢가 益益 重大化한다는報告를 接한 蔣介石氏는 昨十七日 錢大鈞氏以下 平漢線幕僚를同伴하고 飛行機로 急遽 洛陽에서 太原에飛來하야 閻錫山氏、山西首席趙戴文氏 其他 山西省要人 多數의出迎裡에 四省剿匪指揮에 入하야 爲先 閻錫山氏와 綏遠問題에關하야 長時間密談을遂한 後 徐永昌氏等 山西將領을 召集하고 軍事會議를 開催하엿다

中國側、前線에 續續部隊를增援

【上海十八日發同盟】歸化城十七日午後十一時發 大公報着電에依하면 綏遠軍總指揮傅作義氏는十七日平地泉에서 綏遠軍을 督戰하고잇다 平地泉으로부터 興和陶林前線으로 增援되는 部隊는 連絡不絕하야 平地泉市內는 城防司令趙開元 重長周鈞이 連日民衆代表를 召集하고 市民은 治安維持를 講究하고잇다 兩日中에 蒙古中國兩軍間에 大激戰이展開되리라하야 前線에서 오는情報로 一喜一憂하고잇는現狀인데 各種流言이 傳하야 戰戰兢兢하고잇다

蒙古軍士氣旺盛

【上海十八日發同盟】綏遠省歸化城來電에依하면 十五、六兩日 紅格爾圖一帶에서 激戰을交한 蒙古綏遠兩軍은 十七日午前 局部的衝突은 잇섯스나 空軍의 襲擊도 行치안코 大部隊의 衝突도업섯다 同日午後兩軍은 모다 負傷者를 處理하고 蒙古軍은二路에모다 兩指揮官이 前線에出動하야 督戰하는 模樣인데 蒙古軍의 士氣는 자못旺盛하다고한다

豊田紡織罷業은 中國大學生의煽動

【上海十七日發同盟】豊田紡織罷業은 中國大學生의煽動業職工은 工部局警官隊의 嚴重取締로 其後暴行한 事實이업스나 附近에는 中國大學이잇고學生이

綏遠紛爭問題로 國府、交涉中止?

蒙古、綏遠兩軍의交戰은日本側使嗾이라고 日中交涉無期延期를聲明乎

【上海十八日發同盟】中國側은日中交涉에 誠意를表치안코 極力交涉遷延策을 取하야 日本側을 憤激케하고잇는데 中國側情勢에 依하면 國民政府는 去十四日來 綏東에잇서 蒙古綏遠兩軍間의戰時紛爭은 日本側의 使嗾에依한 것이라는 口實을設하야 目下川越張群間에 續行되고잇는 交涉을無期延期하기로 決定하고 一兩日中에 外交部로부터 交涉中止聲明을 發하기로 決定하엿다 하는바 其推移는 重大視되여잇다

太平洋防備强化次 米飛行艇大量建造

【華盛頓十七日發同盟】米國海軍省은 防備强化하는見地에서 哨戒艇飛行艇六十六隻을 建造하기로 決定하고 總額六百五萬六千弗로 コンソリデーテッド航空會社에 其建造를 注文하엿다 竣工時에는 眞珠灣根據地其他에 急送하야 太平洋上의 防備에 就할豫定이다

北中、防空問題를 中國側依然反對

第八次會談은今週末頃

【南京十七日發同盟】川越張群第八次會談을 압두고 國民政府는 十七日 行政院會議에서 日中交涉에對한 中國側의 對策에對하야 全面的討議를 行한結果 張群外交部長의 外交方針을 支持하기로 意見一致되엿는데 問題의 重大性에 鑑하야 蔣介石氏의 最終的支持를 仰할 必要가잇서 亞洲司長高宗武氏는 會議終了後 即刻飛行機로 洛陽에急行하야 外交部의 具體的方針을 詳細說明하고 裁斷을 仰하야 一兩日中에 蔣氏의 最後決意를가지고 南京에 歸任하야 張群部長에게 復命한後 日本側과 折衝할터이다 이때문에 川越張群 第八次會談은 今週末頃에 될模樣인데 中國側은 北中、防共兩問題에 對하여는 어데까지反對的態度를示하고잇는바 結局 今回의交涉에잇서서는 右兩問題에 關하여는 具體的成果를 收得하기는 困難한 模樣인데 日本側의强硬態度와非難을 如何히 調和할는지 非常히 苦心하고잇는 狀態이다

重要使命마치고 伊外相歸國

【부다페스트十七日發同盟】伊太利外相차노伯은 十二日부다페스트에赴하야 匈牙利政府首腦部와 數次會談을 遂하고 伊匈兩國間親善促進의 使命을마치고 十六日午後 夫人同伴으로 羅馬로 向하엿다 一方 匈牙利攝政호르티提督은 來週 羅馬를訪問하고 에마우엘三世陛下及 뭇소리니首相과 會見할豫定이다

시리아基督敎徒와 回敎徒大衝突

【베이루트(시리아)十六日發同盟】시리아地方에잇는 基督敎徒와回回敎徒가 最近每事에 反目하고잇든바 十六日回回敎徒가 基督敎徒街를 襲擊한 結果 基督敎徒도 隊伍를 組織하야 回回敎徒部落을 襲擊하야 大衝突을 演出하엿다 結局警官隊及 軍隊가 出動하야 鎭壓에 當하엿는데 이騷動으로 死者三名 負傷二八名을내이엿다 事件鎭壓後도 警官隊는市內를 巡邏하야 商店은 大門을閉鎖하고 空氣는依然險惡하다

人事·集會

▲安鍾元氏(書籍協會幹事長)協展閉會人事次十八日來社
▲高羲東氏(同會幹事)同上
▲李正求氏(東一銀行副支配人)十五日嘉松町二八自宅에서遭內艱

八面鋒

◇獨蘇抗爭은 자고나도그뎌、性味急한사람은 戰爭구경하기가 어려울는지。
◇河川條項破棄로 佛國이對獨航行協定을 또破棄。
◇平和의蜃氣樓가 문허지는판이니 석가래쯤 나려안는것은 問題안되는일。
◇西班牙의 內爭이나 歐洲의 紛糾를 同工異曲으로보다하면 시원치는 안흘일。
◇두루매긔、國甲記念奉行。
◇綴字法統一案을 뒤바치어標準語査定까지 되얏스니、先生은 모름지이 瞑目하라。

話題論說

都市計畫

◇朝鮮에도 昭和九年、制令第十八號로 都市計畫을 目的으로하는「朝鮮市街地計畫令」이 發表되고 작년에는 京城、釜山 그리고 羅津 새로 城津 平壤 仁川等 八個府에 도다시 이令을 施行하기로되야 이제 不遠間 面目을 一新할 都會마다의 話題는 오로지 이計畫令으로 모히고잇다。

◇都市計畫의 意義는 都市生活에 必要한 交通 衛生 保安 經濟等에 關하야 永久히 公共의安寧을 維持하고 또 福利를 增進하는데잇는것으로서 그實施事業으로는 (1)交通施設―街路 鐵道 軌道 運河 港灣 航空等의交通機關、市場、倉庫等의 施設 瓦斯 電力 電氣供給等의 施設 住居 商業 工業地帶의 區分等土地整理 (2)衛生及保安施設―上下水道 公園遊園 自由空地 運動場 墓地 屠場 市外區分場의配置、統制、不良住宅改良等에 關한것인데 그어느施設이나 모다 都市計畫의 理想에 맞도록 하여야한다는것이다

◇從來 世界多大數의 都市는 아무 準備도計畫도없이 自然膨脹에 放任하여온關係로 衛生上不適當한은 勿論이고 交通은 混亂狀態에 빠지고 火災때에는 一時에 巨大한財産과 人命을 燒失하며 또都市란 一種犯罪의 巢窟化해버렷다 그런데 이現象은 産業革命以後 勞動者와 地方의 農民이 都市로 集中하게되면서부터 더욱 顯著해젓다 이現象을보고 都市解消 人口分散을 主張하는사람까지도 잇섯지만 이것은 結局 經濟機構에 맡으는 問題이기때문에 論者의 理想과 가티 그러케 無條件人口分散이나 都市解消는될理가 업섯다 여기에서 都市의 衛生化와 좀더살기조흔都市를 맨드자는 計畫을 세우게된것이다 그러나 그러라고해서 옛날이라고 人類가 都市計畫을 가저보지못한것은 아니다 埃及에서 發掘되는古都에서는 각금 그자취를차저볼수잇스며 希臘이나「로마」時代에잇서서도 亦是 그痕跡이發見된다 그러나 그時代의 都市計畫이란 帝國가 좀아서 都市의美觀 交通 外敵防禦 防火에不過하엿고 오늘날과가티 … 은 亦是 二十世紀初부터 發達된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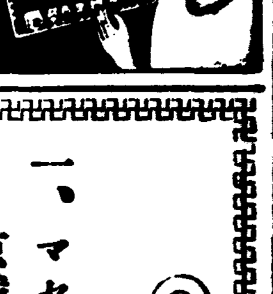
◇그런데 이都計에關한 法律은 日本內地에잇서서도 大正七年以前까지는 겨우 東京市區改正條例로써 消極的市區改正을 해오다가 大正七年에 都市計畫調査會를 設置해가지고 調査硏究를 거듭한結果 昭和八年에 일으러 法律第三十六號로都市計畫法을 公布實施하야 이제 都市는勿論、町村에까지 이것을 實施하고 잇거니와 朝鮮에서 이와가티 비로소 十餘都市에 이令을 實施하게되는것도 亦是最近數年來로 都市가 膨大해진것을 말하는것으로서 우리의 生活에 그만큼變動이 생긴 反映으로 볼수잇는것이다 (李甲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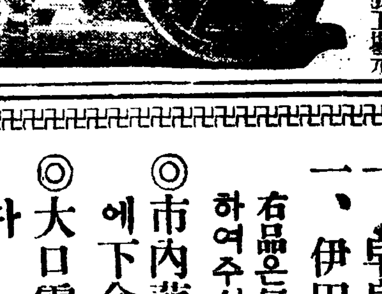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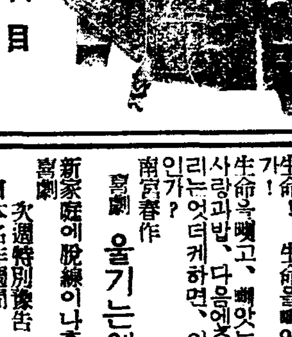
定例局長會議

總督府局長會議는 十八日午前十時부터 第三會議室에서 開催하고 大竹內務局長의 咸北視察報告가 잇슨後 三橋警務局長으로부터 十二月八、九兩日 警察部長會議의 招集 刑事警察의 充實施設 匪賊討伐狀況等 山田遞信局長으로부터 平壤放送局이 十五日부터 開始되엿는바 好成績이것 十二月一日부터 郵便爲替 …… 것 …… 義州 碧山에 新設할것等 報告가잇고 …… 各局長代理로부터 事實、…… 報告及 …… 滿洲視察談이 잇고 最後에 南總督은
一、朝滿鐵道는 現狀에對하여는 此際 正當한 認識을必要할
一、土地價의 不當한 引上에依하야 工業의發展을 阻害하지안홀것
等注意를 興하고 同十一時十分 散會하엿다

豫算閣議는 結局二十四日頃

【東京電話同盟】大藏省에서는十七日午後二時부터 藏相官邸에서 省議를 開催하고 大藏省所管明年度 新規要求에關한 復活要求에對하야 協議를 거듭하엿는데 明年度大藏省의 新規要求는
一、滿鐵政府所有株拂込
一、紀元二千六百年記念祝典準備費
一、各省營繕費
一、公債利拂
等諸經費는 追加豫算으로 옴기八日에 繼續하야 省議를 開催할 各省復活要求에 對한 第二次査定後 續續提出될 再復活要求와함께 審議하기로되엿다 各省의 復活要求는 大藏省主計局과 各省과의間에서 折衝하고잇스나 事務的折衝으로 큰增額承認도업시 大體로 解決되고 未解決의것도 二十日頃까지에는 豫想이서리라고본다 그리고 陸海兩省의 復活要求에 關하여는 目下大藏省主計局과 兩省經理局과의 間에서 內交涉이 進行되고잇는바 二十日頃까지에는 事務的解決이困難한바 大部分은 政治的折衝에 옴기지안흘수박게업는데 豫算閣議는 二十四日에開催되미 順當이라할것이다


世界的體症名藥
韓氏膏藥
到處藥房販賣
한씨고약이라고 차자시오

創業拾週年紀念特廉賣
期間內에는特別廉價로 提供하겟사오며特히 地方同業者에限하야는元價賣로提供하겟사오니 此好機를勿失하시고만히 注文하시옵소서
有期間內에 特約店(一部一店)도募集하오니 速히 申込하시옵
トミタ 石油 輕油 發動機
(クボタ發動機同型)
高壓回轉マグネット付此機와比較하기爲하야當分間大阪工場元價로販賣함
(最完全한トミタ發動機)


農林省比較審査最高優位入選機
兄弟ホーオー籾摺機
營業科目
トミタ發動機、グロリ發動機
マスタ發動機、フクリ發動機
ミヅタ發動機、中央式精米機
兄弟ホーオー式籾摺機
兄弟ホーオー式製粉機
板野式籾摺機及脫穀機
マルヤ式ヒューガルポンプ
セーノー式籾撰機及製繩機
中央式製粉機及製油機
日立式モーター、改良農具
其他諸機械製作及直輸入
中央商工社
京城府蓬萊町一丁目四八
電話本局四七三五番
工場=蓬萊町三丁目六二
電話本局一五二六番

どりこの
美味滿點 滋養滿點
▲胃腸衰弱에
▲病後衰弱에
▲老衰貧血에
▲產前產後에
▲發育不良에
全國藥店百貨店食料品店에잇습

朝報案內
小店
募集 身體健康、普校卒業、市內保證人 要
履歷書 寫眞 持參來談
京城府南大門通二ノ二二六
植村製藥所

謹告
一、マセック型 京城ピッチ煉炭
一、値段、(十四個入)配達込 拾九圓八拾錢替
二、特質、火力長持、絕大强熱、灰分僅少
一、新發賣品 大同中塊炭
一、値段、一噸配達込貳拾壹圓替
二、特質、白煙僅少、火力强熱且長持灰分有煙炭의三分之一未及
一、新發賣品 星印二穴煉炭
一、値段、一二〇〇個配達込貳拾圓拾錢替
二、特質、官製煉炭代用品
三井石炭部專屬
官製煉炭 販賣所
西田石炭商店
京城府古市町四十一番地
電話本局(長)二一二〇番 八一九番
貯炭場本局一、四二九番
右外에「ストーブ」用其他一般家庭用
一、西川洗中塊炭 十九圓三十錢替
一、阜良洗中塊炭 同 十八圓八十錢替
一、伊田洗中塊炭 同 十八圓五十錢替
右品은何時라도在庫豊富、品切될念慮는업사오니만히愛用下命하여주십시요
◎市內薪炭商에一切具備되여잇사오니 近處商店에下命하여주심을切望
◎大口需用되시는대는 特別便宜를圖謀하겟습니다

◎前週滿員謝禮◎ 暖房裝置施設
十一月十八日낫부터
劇團 靑春座公演 第二週
李雲芳作 悲劇 生命 三幕四場
生命! 生命을빼앗기고살수잇슬가!
生命을빼앗고、빼앗는자는누구?
사랑과밥、다음에죽는것이다、우리는어떠케하면、이生命을빼낼것인가?
南宮春作 喜劇 울기는웨우나요 一幕
新家庭에脫線이나혼、爆笑喜劇
次週特別豫告 日本名作週間
1、月給날
2、자식을죽이기까지
3、아버지도라오시네
直屬劇團 豪華船 西鮮巡演中
東洋劇場
西大門町 電話光二一五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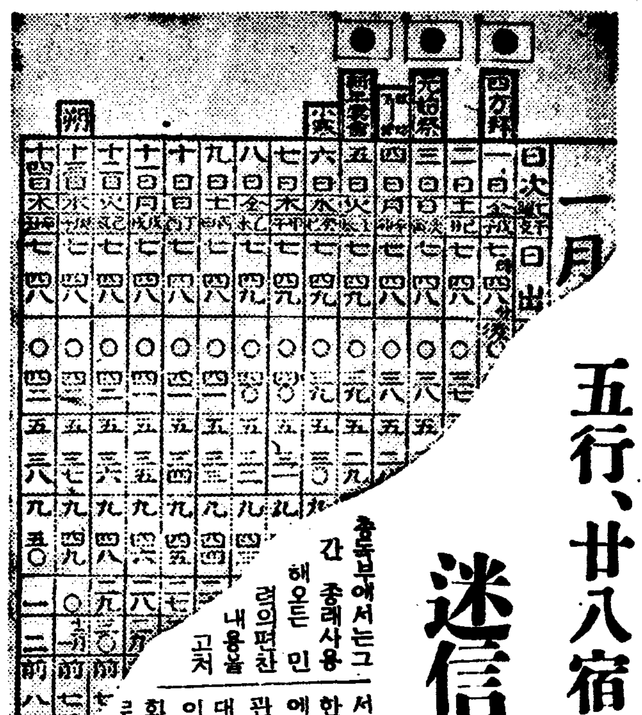
十八日封切特別大興行
每日午後一時半六時廿分二回
◇유나이데드社超特作映畫
今週中에 二百名에限하야 메리 픽포드 主演
小公子
◇RKO라디오社超特作映畫
사랑의彈丸
實錄文學의完璧的視覺化!
美人自叙傳
團成社

◇十一月十七日부터三日間
三大超特選大名畫大衆料金十錢均一
土曜日曜祭祝日은晝夜二回上映
夜七時始映
◇RKO社超特作日本版
洞窟의女王 全十一卷
◇RKO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大巨篇 폼페이最後의날 全十卷
巨匠메리안C쿠파氏
曉の超特急 全七卷
日本映畫
新富座
新堂町 電話本2 三三七

榮養에 わかもと
三成堂製作部
三成堂本店
金비녀

陽曆을標準으로 發刊된改正民曆

五行、廿八宿、十二直行事等 迷信的部分은削除



총독부에서는그간 종래사용해오든 민력의편찬 내용을 고처 서울력은절기의표시에끄치고순전한양력중심의 민력을만드는동시에 종래로시러내려오든 미신에 관한부분은 전부삭제해버려 시대에적합한 민력을만들어오든동 이방침아래 제일호로 편즙된소화십이년민력이 십일월이십일부로 발행하게되엿다

이민력은 종래의 민력서두에 반드시써서오든 음력세차절후표를전여말쇄해버리고음력의표시는 양력의일차(日次)아래월(月)의대소표시도업시대조표를간단히하엿슬뿐이며일건(日建)의 간지(干支)표시도 양력을표준하엿슬뿐이요 월건(月建)의간지는 전연표시한곳이업다

이와함께 종래로표시해온 각일차에따라 오행(五行)과 이십팔숙(二十八宿)과 십이직(十二直)을 전부업새버렷고 납재(納財) 관재(冠祭) 이사(移徙)재의(裁衣)상량(上樑) 안장(安葬)가취(嫁娶)등의적당 부적당을표시하던것(欄)을 전부삭제해버리고연신방위도(年神方位圖)와 가치추당도(…)가튼 미신적부분은 일체로생략해버렷다

전기항목들이 업서진 대신으로 일출(日出) 일남중(日南中) 일입(日入)을 일차에따라 기입하고 주간(晝間)의시각과 월출(月出) 월입(月入)의시각과 인천을표준으로한 간만조(干滿潮)의시각을 분명히기입하고 웅기(雄基)신의주(新義州) 원산(元山) 평양(平壤) 경성 대구 부산 목포 등유수한지방을표준으로 매순일(旬日)의 일출입표(日出入表)를 게재하엿고 삭(朔) 상현(上弦) 망(望) 하현(下弦)을양력표준으로 표를만드러 게재하엿스며 연대표와 음양력대조표를 상세히 표시하고 수도편람(水稻便覽)이라고하야 농가의 논농사의행사표를따로만들고 수산동식물채포(採捕)금지일람표와 어업면허(漁業免許)과 림업(林業)편람등을 자세히표로 마들어 부록하는동시에 가일자서두(歲首)에는국제여정의의미에서 축제일을 명배히표시하고 특히 국가경일과 시정기념일도 표시하엿다

대체로 금번개정민력의 특징은 전부를 양력표준으로하야 절후간지까지도 음력표준을 제외하는동시에 종래의 미신적부분을 전부삭제해버린것으로종래의음력표준민력에 눈이 허온농가로서는상당히눈서투를것이만흔것이라한다

公休重復이三回

—月給쟁이로서는厄年(?)— 二月寒食、十月立冬

명년의 민력에 나타난 절후관계를 보면 한식(寒食)은 이월하식으로 구력이월 이십오일로 절후가 당것스며 망종(芒種)은 구력 사월이십팔일이요 소서(小暑)가 구오월달에 드러더위가 일즉 올것이요 복(伏)은 말복이 월복(越伏)을하엿고 처서(處暑)는 구칠월십팔일이요 립동(立冬)도 구시월륙일로 절후가 대체로 일르다

일요는 오십이일요로 평년과 마찬가지요 축제일과 일요일의 중첩되는 날은 일월삼일 원시제(元始祭)를 비롯하야 삼월이십일일 춘기황령제(春季皇靈祭)시월십칠일신상제(神嘗祭)를합하야 사흘이되며 『쌔러리맨』들로서는 그리 운이 조흔해라할수업스나사월삼일신무천황제(神武天皇祭)와십이월이십오일 대정천황제(大正天皇祭)가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이겹드러 감봉이되는세음이다

일월식(日月食)은 월식이십일월십팔일토요일 공후사오리박게 안되는 월식이며 일식은 십이월삼일로 조선안에서 이부리의 식심(食甚)이 제일기픈식심이라고한다

新設開通線 滿浦本線과 東海南部線

各一部十二月一日부터

일직부터 광궤(廣軌)로 개축중이든 국철(國鐵)동해남부선(東海南部線)울산、경주간(蔚山、慶州間)(三九粁三)은 요사히 완성되엿슴으로 십이월일일부터 운전을 개시하게되엿다 따라서종래의 동해남부선(釜山、蔚山間)이 (釜山鎭、慶州間)이되고 동해중부선(東海中部線)(蔚山ー慶州間、鶴山ー大邱間)은대구、학산간이되엿다

▲철도국에서는 경원선복계、검불랑간(福溪、劍拂浪間)에 리목역(梨木驛)을 신설하고 십이월일일부터 운전영업을 개시한다

▲국철만포본선(滿浦本線)개고、전천간(价古、前川間)륙십삼키로일은 십이월일일부터 운전영업을 개시하게 되엿슨데 신설역명은 다음과갓다

价古(旣設) 狗峴、古仁、梨滿 雲松、仲岩、前川

『省齋育英會』 正式許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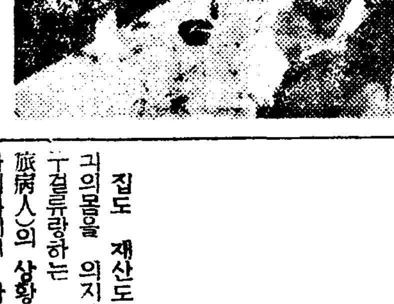
—舊名朝鮮育英會를改名— 十七日府民舘에서陣容編成

경성부어성정(京城府於城町)삼십사번지 김용우(金裕禹)씨의 부로 사십만원의거액을덜지 재양성육위하야 재단법인조선육영회(財團法人朝鮮育英會)를 조직하엿다함은 이미보도한바여니와 그회에서는 그동안모든수속절차를마치고 오직허가되기만고대하든바 지난십칠일에 이르러 시월이십이일부로 재단법인허가서가정식으로 도착 되얏다하다 이반가운소식을바든 동회에서는 십칠일오후오시부터 시내태평통 부민관담화실(府民館談話室)에서 제일회리사회(理事會)와 심사위원회(審査委員會)를 련합하야열고장래경영방침에대하야 여러가지로 협의하얏다는데 한가지특기할것은 그회의 명칭을 당국의 내시에의하야 성재육영회(省齋育英會)로 곳친것이니 성재란 글자는 그회기본재산기부자 김용우씨의 아호라고하며 이제법적으로정식성립된 그회의진용을 보면 다음과갓다

◇理事九人 ▲代表理事成樂憲▲終身理事金思雄▲常務理事李正鎭▲理事李升雨▲李弘鍾▲吳建永▲曹秉相▲金裕德▲金興權

◇監事三人▲金炯九▲林鍾燮▲李明世

◇審査委員七人▲尹致昊▲金性洙▲吳兢善▲梁柱三▲安鍾元▲趙東植▲朴勝彬



사진은리사회광경

"今年度에는 五名을選拔" 代表理事 成樂憲氏談

성재육영회의 경영방침에 대하야 그회대표리사 성락헌씨는 다음과가티 일하얏다。

고부행위자 김용우씨의 특지와 사회여러분의 원조로 오늘날 성재육영회가 완전히탄생되것은 무엇보다 깃분일이옵니다 우리들리사는 오직사업을 잘하기위하야 힘쓰라할니다 금번에는 이미 변입이다되엿스나 한사람이라도 속히 도움기위하야 십이월십일까지 급비신청서(給費申請)를 접수하야가지고 그중서 다섯사람만 뽑으라합니다 명년부터는 매년열사람가량을 뽑을터인데 자세한 절차는의선정성십사번지 본회사무소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運動界人事

▲引率者李在馥▲監督柳基衍▲主將張三龍

▲選手 沈相雲 李春益 朱永在 李承馥 金秦煥 姜東秀 李宰燮 金東讚 魯炳鎬 崔鎭恒 金應振外二名

▲李圭鉉氏(中央體育研究所理事徹文高普敎諭)와 朱良媛孃의結婚式은 來二十一日正午부터 咸南永興郡馬場公會堂에서 擧行

運動競技 京城醫專蹴球部 明日、福岡에

京城醫學專門蹴球部에서는 來二十二三兩日間 福岡에서 열리는 九州帝大主催의 全日本高專蹴球大會에 出戰한다함은 旣報한바어니와 一行은豫定보다 하로앞게 明十九日午後三時 京城驛發 『노조미』로 連霸制覇의 意氣를 품고 出征하기로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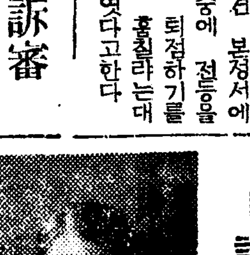
天氣予報

概況 七六六미리의 低氣壓은 咸北中及 黃海北部에잇서 東進中이며 高氣壓은 蒙古方面에七七二미리 日本本州에七七〇미리를 보이고잇다 北滿洲는맑고南滿洲는흐리고 朝鮮도大部分흐려잇스며 國境中部는 눈이오고 西岸中部는 비가오고잇다。琉球諸島는 處處에비가오고 西日本은 天氣가조코 關東以北은 大槪흐려잇다。

豫報 京城地方은 今夜는흐릴것갓고 明日은개이기는하나 좀치울것이다。京畿道全區도마찬가지이다。

昨日最高 一三度六
同 最低 四度六
今朝最低 六度五
今日正午 一〇度

女醫界新星 「許鳳朝孃」



경성녀자의학강습소(京城女子醫學講習所) 출신인 허봉조(許鳳朝)(二三)양은 지난 십사일 총독부에서 시행한 조선의사시험에 무란히 합격되엿다。

양은 평북정주(定州)출생으로 대정십일년에 평북공립양성소를 수업하고 소화오년까지 교원생활을하다가 뜻한바잇서 이래경성녀자의학강습소에서 "녀의사"공부를 하여온 수재이라한다

(사진은 허양)

結氷期·國境一帶 警備陣을强化

新銳武器의充實化와 朝滿兩當局連絡·共同工作

경무국에서는 결빙기(結氷期)의 국경경비를 충실히 하고저 총독부 잉여금(剩餘金)으로부터 칠만구천구백구십원의 림시지출을 요구하엿든바 십칠일 동경각의(閣議)에서 정식으로 결정되엿슴으로 이경비로써 이미수비대(守備隊)가 철퇴한 국경제일선에 경비를 보충하는 동시에 무기탄약(武器彈藥)도 확충하리라한다 특별히 금년겨울경비에는 지난번에 도문(圖們)에서 삼교(三橋)경무국장과 동조관동헌병사령관(東條關東憲兵司令官)과의 회견결과로 경비의 련락긴밀을 도모하는동시에 적극적으로 토벌에 공동공작을하기로 되엿스므로 제이선 제삼선의 경찰관을 상당히 제일선으로 진출배치시켜서 제일선에서 십명 내지이십명으로된 특별경비대를 조직하야 종래방비에 담당하고잇든 경찰관들로하여금 적극적으로 활동하기로되엿다

그리고 작년이래로 비행기과관총 박격포(迫擊砲)등의 새무기도 충실되엿고 래년부터는 무선전신도 쓰기로 되엿는데 금년의 국경경비는 그야말로 금성철벽을 이룬세음이다

中毒患者의 亡身好標本

—청춘의뒤는피를"모루히네"의 신비한힘에빼앗긴 남어지—

파렴치의 도적놈이란 도장까지찍힌 가증한 청춘행장기(青春行狀記)—

시내 길야정(吉野町)이정목사십이번지 서일룡(徐日龍)(二三)은 작년시월 욱정(旭町)이정목십오번지에잇는 조구상점(篠崎商店) 창고에들어가 구리줄 장부책등 삼십삼원어치를훔처 엿장사에게 오원을밧고파라 "모루히네"의 마려에취하엿든것을비롯하야 시내각처에서 전후다섯번에 일백오십여원의 물건을훔처 모루히네를 먹어온것이 판명되여 본정서에서 계속취조를 밧고잇다

大膽한少年賊

대담한악소년의표본—시내명치정(明治町)이정목 륙십부번지쓰레기장사 김종렬(金鍾烈)의집에 잇는유정식(尹貞植)(二三)(假名)은 십칠일오후녜 여서시쯤되여 본정일정목 삼월백화점(三越)사층가구부(家具部)양복장안에 숨어잇슨것을 동점원이발견 본정서에 다려갓는데 그는회중에 전등을 품고잇서 점원들이 퇴점하기를 기둘려 밤에상품을 훔칠라는대담한 계획을자백하엿다고한다

李仁行控訴審

十八日에開廷

조선공산당을 재건할 목적으로 박영출(朴英出)허화정(許和正) 박진홍(朴鎭洪)등과 함께리쟁유(李載裕)리관술(李觀述)등의지도를바더 적색로동조합(赤色勞働組合)을 조직하려 하엿다는혐의로 지난 칠월십사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이년 형개월판결을밧고곳 경성복심법원에불복공소중이든 함남삼수군신남면중평장리(三水郡三南面仲坪場里) 리안행(李仁行)(二三)에관한 치안유지법위반사건공판은 십팔일오후한시부터 경성복심법원에서 적(荻)재판장심리 의전(依田)검사관여미테열리여 방청금지속에사실심리에들어갓다 그와함께징역사년으로부터 일년륙월까지의체형을바든 박영출외일곱명은 일심판결에 복죄하야방금 서대문형무소에서 복역중이다

餠店驛構內慘事

"트럭"과 貨物列車 側面衝突! 人夫即死、運轉手重傷

십칠일밤 아홉시삼분쯤에경부선(京釜線) 병점역(餠店驛)구역안북쪽철도길목에서화물자동차와 긔관차(機關車)와충돌되야두명이 사상하엿다

수원읍내(水原邑)사는 자동차운전수 리재순(李在順)(二?)군은 인부 리선희(李善喜)(二?)군과가티 수원읍내 정기영(鄭基永)씨의 소유화물자동차에 짐을실고 그철도 길목을건느려할 지음에 마침그때에 긔관사 판본청시(坂本靑市)(三?)군이 운전하야 남쪽으로가든 화물렬차의 긔관차에 바치여 운전수와 인부는약오륙미돌가량 밀려나가서 튀여떠러저서 인부는즉사되고 운전수는 전신수개처에 중상을입엇스며 그러고 긔관차는 약이백미돌가량이나 아프로 화물자동차를밀고 나갓다가 겨우 정거하엿는데 병점역원들이 해人불을들고 현장을 조사하는중에 그불이 자동차의 휘발유(揮發油)에 올미부터서 자동차와 자동차에 실린물건은 전부 타버렷다 긔관차는 고장이 생겨서 운전을할수업게되고 달고가든 화물렬차이십대는 수원역으로 끄으러갓다 이때문에 이때 그정거장을 통과하는 북행렬차는 오분가량이나 늦게떠낫다 수원경찰서에서는 계원이현장에출동하야 조사하는일방으로 사고를낸 쌍방관계자를 불러다 가조사중이다

京釜間超特急 來月부터實施

所要時間 6時間45分

철도국에서는 십이월일일부터 경부간(京釜間)에 운전하는 초특급렬차를 오는 이십일 동구간에서 정식으로 시운전하게되엿는데 동렬차는 오전칠시삼십분 경성역을떠나 오후두시십오분에 부산역(釜山驛)에 도착할예정으로소요시간은 겨우여섯시간사십오분이다

라디오 放送網擴充

來明年內로七放送局完成計畫

조선내의 『라디오』방송망은이미 평양(平壤)방송국이 개설되야 경성중앙방송국을 비롯하야 부산(釜山)을 합하야 세방송국이 완성하엿고 또금변안으로는 불원간에 청진(淸津)방송국이 개설될터이라한다 그리하야 조선방송협회에서는 다시 조선방송망을 완성하고저 그간 총독부당국과도 협의한결과 명년에는 함흥(咸興)과 신의주(新義州)에 방송국을 개설하고 다시 래명년이후에도 리리(裡里)목포(木浦)대구(大邱)대전(大田)등지중에서 이삼개소에 방송국을 설치하야 전조선의『라디오』방송망을 완성할터이라한다

鳳溪簡易校도落成

【彦陽】경남울산군두동면 봉계리(蔚山郡斗東面鳳溪里)에잇는봉계간이학교(鳳溪簡易學校)는유지와 일반학부형의 헌신적노력으로 전여원총공비로서 교사를신축하고 지난십사일에 락성식을 성대하게거행하엿다한다

不平少婦飮毒 활생

관란이 비저내는 가정비극ー립정정(笠井町)이백륙십삼번지의사호 주미선(朱美善)(?)이라는소부는 시집이가난한것이 원인으로 늘가정에풍파가 끗치지안는것을 비관하고 십칠일 오후네시경에 양재물을 마시고 자살을 도모하엿다 황금정 본전병원(本田病院)에서 응급치료를 바터생명에는 관계업다고한다

街頭의無主屍 近五千名의多數

時急한行旅病者保護施設의法規 【昨年中統計】

집도 재산도 업슬뿐아니라 자긔의몸을 의지할 친척조차업서 걸류랑하는 소위 행려병인(行旅病人)의 상황에대하야 총독부사회과에서 작년중의상황을조사한바에의하면 다음과갓다

행려병인은 총수가 오천이백사십구명인데 그중에 일본내지인은 이백사십칠명이다 그리고 행려병인으로 사망한자의총수는 사천구백십팔명의 다수에달하는 상태로 행려병이중 극히소수를 제외하고는 결국대부분이사망하는셈인데 현재당국의행려병이구호상황은 사망한후의매장등 죽은후의처치에 끄칠뿐이고 사실상구호하야살게하는수는매우적다

이것은 현재 이에대한 통일적법규가업고또 경비가적어서 이에대한 아모시설이 업는때문입으로 금후사회과에서는 행려병인 취급규측등 이것의 보호에대한 법규를정도하며 제정하야 예산을요구하야 시설의 확충을 도모할터이라한다

檢案屍體 三百六十三個

京畿道警察部管下 變死、自殺、他殺의이모저모

경기도경찰부 경찰의사의 손으로 검안(檢案)한시체는 일년미만에 십륙일까지에 삼백륙십삼개나된다 작년에는 한해동안에 삼백륙십개엿는데 금년에는 십개월반만에 벌서 이와가튼 만흔 수효를 내엿다 죽은사람의 종류별을보면

▲병사자 일백팔십이명을 필두로▲자살자 이십오명
▲다른사람에게 마저죽은사람네명
▲물에 빠저죽은사람 오십오명
▲목매여죽은사람 열여덜명
▲긔차전차 자동차등에 깔려죽은 사람 열다섯명
▲톱에 다서죽은 사람여섯명
▲얼어서 죽은(凍死)사람열두명
▲눌려서죽은 사람 열아홉명
▲중독(中毒)되여 죽은사람네명
▲감전(感電)되여죽은 사람두명
▲사태(死胎)열여덜명
▲죽은원인 불명인사람

이엿는데 자살자가 작년에는이십이명이엿스나 금년에는 벌서 이십오명이나 되엿다

少年窃盜團

삼인조소년절도단이본정서에 검거되엿다 전북옥구군림피면 미원리(沃溝郡臨陂面米院里)태생조점순(趙占順)(?)(假名)이는 십칠일밤 아홉시가지나 황금정사정목삼백십번지리유성(李有成)의잡화상에들어가"메리야스"치다를훔가 본정서원에게 발각체포되엿다이는 동년배되는 두소년과 공모하야 시내각처로 도라다니며 절도를 감행한것을자백하엿다

水害義金

五十萬圓突破?

풍수해에대한 의연금은 아직도계속하야 조선사회사업협회에 모혀 십칠일은 충북(忠北)외륙도지부로부터 오만칠천삼백십원이 도달하여 총계사십사만팔천팔백구십이원오십이전의 다액에 달하엿다 이로서 예정액사십만원을 훨신돌파하야 지금가터서는 오십만원을 돌파하는것도어렵지는 아나라고생각되며 동협회에서는 이달말일로서 모집을마감하야 곳피해각도에 분배하기로되엿다한다

冬節衣服次景品附大賣出
동절의복차경품부대매출

고급 주단 信用商店

京城鐘路二丁目三三 (빠고다공원위)
電話光一三七三番

景品內容案內합니다
一等 白米四斗入 一俵
二等 洋服一襲 一座式
三等 高級구레빠세루周衣 一件式
四等 高級本絹하부다이치마저고리 一組式
五等 벤베루구치마 一件式
六等 玩具及菓子 一個式

期間 自十一月一日보터 至十一月卅日까지

但洋廣木과半額品에는景品券을進呈치안습니다

白子屋洋服部

婚需次에는特別謝恩品을進呈합니다

新鮮理想號
얌마ー動力用脫穀機
稻麥兼用

●●能率絶大 機械堅牢
●●撰別優秀 使用簡易
型錄進呈

株式會社 山岡發動機京城支店

十一月十五日開院
醫學博士 金晟鎭外科
外科一般診療、入院隨意
京城府瑞麟町一三三番地 電話光化門③一七九〇番

◇校舍大擴張◇
實踐簿記專修學院
第四七回生募集 同補缺生募集
官廳銀行商店就職紹介◇晝夜開學十一月隨時 學則要二錢切手
京城府黃金町六丁目一三三番地(電本五三六〇番)

◇校舍大擴張◇
京城 中等豫備專修學院
補缺生募集 京城黃金町六丁目一三三番地(電本五三六〇番)
◇開學 十一月隨時(晝夜)學則要貳錢切手◇中等科第一部第二部第三部(中等學校入學受驗準備)

各種信託 低利貸出 迅速有利
朝鮮信託株式會社
京城南大門通一丁目十九番地
社長 谷多喜磨
支店所在地 群山、釜山、木浦、平壤、大邱 (營業案內贈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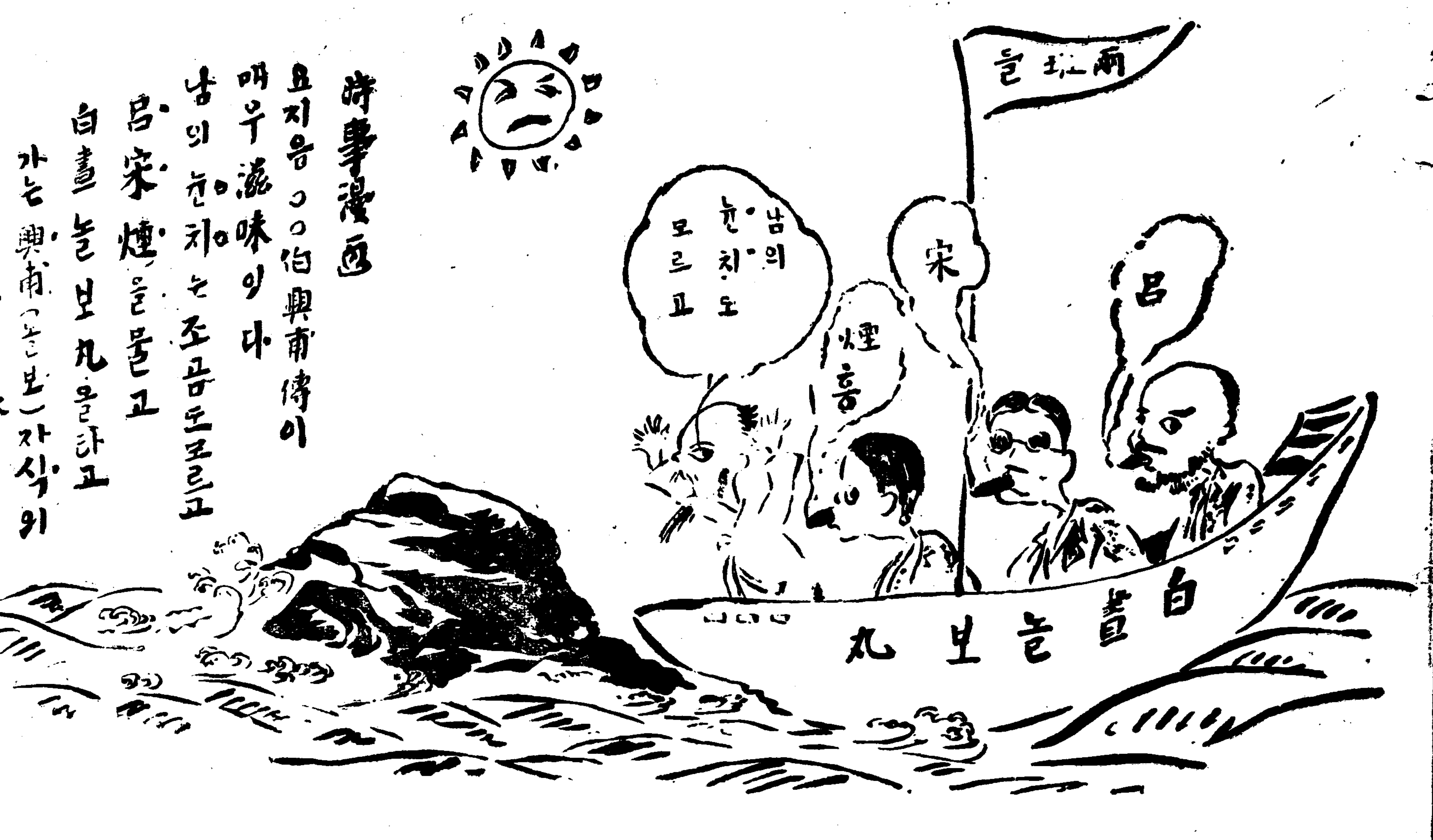
天一靈神丸

가을!
가을이왓슴니다
換節期에는飮食을注意하십시요
常備하야消化良劑天一靈神丸을準備하야주십시요
不意에생기는吐瀉霍亂에神效할뿐아니라恒常服用하시면모든病을豫防하실수잇습니다

效能
▲食滯 ▲吐瀉霍亂
▲暑滯 ▲消化不良
▲酒滯 ▲胸痛
▲氣鬱逆上 ▲關格
▲腹痛 ▲頭痛眩暈

藥價 十錢 二十錢 五〇錢 一圓

全國各地有名藥店에서販賣합니다
京城禮知町
朝鮮賣藥 本舖 天一藥房



지금곳안곳치면 대대손손칠팔대까지유전하는무서운병은매독이다

매독은 당창, 또는창병이라고하야 살이떡떡썩어들어가는 무서운병이다 코가떠러지고, ○이빠지는 병인줄은세상사람이다-아는바이다。그런대 사람치고누구나다-병근이잇다는대, 병이발하야 심하야저야, 치료를하나잘안낫고 나날이썩어드러간다,

육백육호를맛는분 도만으나, 잘안되는 모양이다, 그증거는 이세상에서 매독이 업서지지 안는것을보드라도 잘알수잇다。그런대이「푸로다」는 무엇보담답지하는 감상이 증명한다。

당신의 생명을구하여주시는 구명주(救命主)가왓습니다。천사가(天使)왓습니다。이기회를일치마시고 곽잡으시오。일각이급하오니 곳치료하시오, 수저마시고 다음과갓흔 증세의분은쓴시오。

여드름 이만히나고 종기와헌듸가잘나고, 코가헐고, 남녀간에국부가헐고, 가렵고 전신에 종기가룩룩러지는분은쓰시오。눈이희미하고 머리가빠지고, 팔다리가 쑤시는분은쓰시오。경성서대문신성당으로 주문하시면 당일로비밀히보내드립니다。약은 환약이오일주일에효를봅니다。

매독엔푸로다-를 쓰시오

만일무효면엇더한책임이든지집니다

매독엔「푸로다-」로

이원장 광고를 내는 리유(理由)는 신성당 사장은 륙칠년전까지 매독이라는병이 어떠한 병인지 자세히 몰랏섯다(물론병에 걸린일이 업섯슴으로) 그뿐더러 매독에는 륙백륙호만 마지면곳낫는 줄알엇섯다 그런데근래(近來)륙백륙호로 매독이완전히 근본적으로완 치된다는 말도듯고 또실지로연구하야보앗다 또 매독환자는 그다지만 치안흔줄알엇섯다 그러나 그생각이전연(全然)근본적으로 잘못알엇다는 것이판명되엿다 즉륙백륙호를 매독에걸려서즉시 계속하야 일주일만에 한번식십여대나마저야 겨우일시적효력을알게되고 잠간동안잠복시켜 매독을눌러서못성하게 하얏다는것을 알엇다 (일주일전에 또 마질수업는것이다 일주일전에또마지면따)병을알케되고 잘못하면죽는고로일주일만에 한번식맛는것이다)다시말하면 결국 륙백륙호로는 절대로는 매독이근본적으로완치되지안코 또십여대나주사를마저야 겨우일시적정지를시킬수잇스나곳또다 시재발하는것을 알엇다 그러면 륙백륙호를칠십일이상불일못보고 돈을오,륙십원이상허비하고 주사를마저짜아모소 용이업고 귀중한시간과금전만허비한다는것을 알엇다 그뿐더러 륙백륙호를마지면 몸이약한사람은 약일주일동안은일을못하고 알코들어누어서고통을밧는 사람이만타 또주사를잘못마저서 즉주사가정맥외(靜脈外)로새면살이썩어숙게되는고로 곳팔(腕)을잘러버리고병신이(不具者)되는 사람이만흔것을알엇다 또 그뿐더러열중에칠,팔명(十中七,八名)은돈이업고서서(金錢과時間이)주사를열대 (十本)이상맛지못하고병을그대로두어서살이떡떡썩어들가는것을 만히보앗다그일예(其一例)를들면하로는경성시내에잇는한남자가원전신 매독이만창이된시골머슴을다리고(雇人)왓는레와서이병좀고처주시요하고랫만데그병처(患部)를보고 깜작놀고다 그병처라는것은당초에 말할수업는것이다즉분문(肛門)과낭(囊)사이에이전(二錢)짜리동전만하게큰구멍(孔)이빵뚜러저잇섯다 아이저러케몸에 구멍이뚜러지고도사람이어떠케살어왓나하고 차차물어보니서울서머슴사리를하다가 시골서 역시 머슴사리를하는데 우연히매독에걸려차차 살이썩 어먹어들 어가나머슴의 신세라약 쓸돈도업고 주사마즐 돈도업고하야 그대로내버려두엇더니그러케 구멍이크게 뚜러젓고요지음은전신에 종긔부스럼이(梅瘡腫)룩룩러저 인제는못살것가려서 그전살던서울 주인을 차저와서 그전살엇든 정의로 사람좀살려주시오하고 애걸을하러온것이 판명되엿다 그리하야 그주인이돈은내가낼터이니 불상 한사람을 좀살려주시요 하고 차저왓섯다 그리하야약을 주어셔더니 완전한 사람이되엿다 고편지가왓섯다 또한례를들면 그후

에웬남자가한부인을데리고왓는데 얼굴이만창이되여 송신처럼두덕이 가저서 소름이끼치여서 눈으로 볼수업시되엇는대 그부인말이이 병만곳처주면 죽어도그은헤를안잇겟다고 우는소리를하면서 하는말이여자가얼굴이이럿케되여 남이붓그러워살수가 업스므로주사는물논 여러백대를맛고약이라는약은잇는대로다ㅡ쓰고별별치료를다하여보왓스나 종시낫지안하는대 엇던사람은양만매독으로치료하여도안나으니 매독이안이고풍이라고하야 풍약도무수히써도 안되고하니신성당매독약푸로다ㅡ는매독이아니고풍이라도나을수잇는야고 말을하얏다 신성당 매독약푸로다ㅡ는단숨히매독즉창병만낫는것이안이고보혈청혈(補血,淸血)피를깨끗하게하는약임으로 서령매독이안이고풍이라도조흐니한번시험하여보라고하엿더니 몃칠후에 그부인이왓는데말숙한미인이되여왓다아ㅡ참위대하구나약의힘이여그럿케도무섭게생겨눈으로 볼수업든사람이수일간에 미인으로화하는것을보면 그리고그부인말이인제는사러낫습니다선생님의은덕이야 그야말로태산갓다고합니다 이러한자신하에서 그뒤로 차차연구를거듭하여보니무슨병이무섭다하여도 매독가티무서운병이업는것을알엇다 즉임질이나부인대하증냉병은 자손에게유전(遺傳)은안되는대이매독은자손에게 유전할뿐더러칠팔대(七八代)를대다로전하여가는것을알엇고코가떠러지고○도빠지는것을알게되엿다즉남편에병니에걸면그부인도물론곡걸니고아이도피속에그균(菌)을가지고나온다참무서운병이다 그리고매독환자는적은줄알엇더니사실은그럿치안타다ㅡ비밀에 붓치고말을안하는고로 업는것가트나그럿치안타열중에오륙명은잇다 그런대대개는상약이나주사나 만히하엿서도낫지못하고고통을밧는것을알엇다또수은(水銀)을피다가준은 사람이만코다른훈을 하다가병신된 사람이만타또 조약상약(造藥常藥)을쓰다가피를토하고구감(발통)과창자를버려)이나서죽게된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럼으로이무서운병을알면서 그냥둘수업스므로충분히연구를하여엿섯다그리하엿드니감사장이매일답지하모로자신을어더이와가티광고를내게된것이다천만가지로약을하고 별별치료를다하여도안나어고통하는분은일시라도주저마시고곳시험하시오 틀림업시낫습니다

京城府西大門入口(제일교회뒤골목집)
發賣元 神崎神聖堂藥品直輸入株式會社
電話光化門三三四番 振替京城四九五〇番

육백육호를여러대써도안되는분은 꼭한번시험하시오

【가 약】

병이중한데는 칠원
병이원만하면 오원
병이시초면 삼원

지방송료
선금무료
대금인환
삼십오전

병이좀심하면칠원분이좃슴니다

大神聖堂의陣容

支社、代理店、特約店一覽

光州支社 全南光州府明治町四丁目二七 支社長 金周植殿
海州支社 黃海道海州邑南本町一六〇 支社長 宋淳烱殿
水原支社 京畿道水原邑北水町 支社長 李光澤殿
軍威 支社長 李榮喆殿
長淵 支社長 孫德淳殿
宣川支社 平北宣川邑 支社長 李日貴殿
安養支社 安養 支社長 朴在承殿

市內卸賣總代理店 鍾路三丁目 第一藥房 尹璿

忠南之部 代理店 天安邑內
慶南之部 代理店 龜浦
黃海道之部代理店 黃海道長淵邑
咸南之部 代理店 端川郡汝海津 永興郡宣興面
咸北之部代理店 漁大津 惠山線合水驛前

京城之部 特約店 京城府淸凉里町一二九
京畿道之部 特約店 東豆川驛前 仁川府外里 金浦邑 開城府都橋市 始興郡新東面平賑里 永登浦 龍仁郡南四面鳳鳴里 水原郡鄕南面發安里 漣川郡南面華山里土橋場 京畿道水原邑內 京畿道陵谷驛前 京畿道素砂驛前 永登浦町五三三 楊平郡龍門面新店里 東豆川
忠南之部 特約店 大田府大東町四九 洪城邑專農園 成歡驛前安成商店 扶餘郡良化面草旺里 公州郡錦町 全義驛前 忠南溫陽溫泉
忠北之部 特約店 淸州郡米院面岐岩里二〇九 忠州錦町三八 淸州邑淸水町一二〇
全南之部 特約店 順天邑金谷里 潭陽郡大田面谷城里 木浦府竹洞木浦劇場前 海南郡邑內
全北之部 特約店 郡山府藏財町一四五ノ二 金堤邑內 井邑郡笠岩面大興里 井邑郡七寶面白岩里 茂朱郡赤裳面北倉里 益山郡王宮面興岩里 全北裡里邑內南中町四六二
慶南之部 特約店 昌原郡昌原面鎭路 京釜線勿禁驛前 咸陽郡安義面錦川里 河東邑 晉州邑昭和町大明堂 晉州邑明治町 晉州邑日出町一〇九 晉州邑日出町六二 晉州邑榮町 馬山府俵町 馬山府石町 釜山府寶水町養宗院 蔚山郡靑良面開谷里一六 居昌邑內 咸安郡凡西面斗山里 咸陽驛前 泗川郡西浦面舊浦里 晉州郡邑明治町五五 南海 馬山府富町市場入口 昌原邑
慶北之部 特約店 榮州邑 軍威郡山城面三山洞二〇六 尙州郡邑外省里

天和藥房

[illegible]

江原道之部 特約店 春川邑本町 鐵原郡北山面[illegible] 春川邑內 佛甲寺驛前 大邱府達城町三〇 淮陽郡華陽面松金洞 金化郡邑 江陵邑內 原州郡原州面花月里一〇四 金城驛前 原州郡富論面興湖里 洪川郡化村面君業里 平康郡福溪驛前 鐵原邑中里 元山府南村町二四 元山府廣石町一 元山府 甲山郡惠山鎭本町 興南驛前九龍里 咸南北靑郡下車書面萬春市 咸南馬場驛前
黃海道之部 特約店 海州郡海州邑西榮町一五二 同 南本町二〇 長淵郡牧甘面芝村里三二四 同 芝村里三一五 海州郡海州邑南旭町三四一 載寧邑內 鷄井驛前 鳳山郡德在面赤城里 海州邑北旭町二五七 信川郡龍門面福隅里 延白郡[illegible]里 海州邑內北幸町三六五 安岳邑內 載寧邑內 南川驛前 沙里院本町通
平南之部 特約店 平壤府新陽里一七九ノ六 平壤府大和町通 大同郡斧山面中二里 肅川驛前 龍岡郡海雲面城峴里 龍岡郡海雲面龍井里 安州郡立石市 李觀信 平壤府南町四一 平壤府橋口町四〇 平南价川驛前
平北之部 特約店 碧潼邑內 滿浦線香山驛前 龍岩浦農民共生組合 宣川邑川北洞 鐵山郡邑內 江界郡公北面香河洞 熙川郡邑上洞八五 宣川邑川南洞 新義州[illegible]勒洞 雲山驛前 定州郡大田面雲鶴洞 雲山郡北鎭市 新義州府眞砂町
咸南之部 特約店 馬場驛前 咸南永興驛前 京元線南山驛前 新興邑內 定平郡新上驛前 永興郡早寧面三湖里 豐山邑內市 義信商店 長津郡郡內面上梅田里 新高山驛前 北靑邑[illegible]局 北靑驛前 北靑郡下東書面萬景市

[illegible]

支社長大募集

各道及 府廳所在地에서 支社經營하실有力한新進事業家를 支社長으로 大特典付로 募集함

支社希望이라明記하시고規定書請求次第無料郵送함

京城 神崎神聖堂藥品直輸入株式會社 謹告

부르나못부르나 병패가 만흔 직업

어느직업에고 다 각각 특수한병
―직업병을 주의하자

먹고 살자니까 직업을 붓들 수밧게는 업스나 어면 직업치고 편한 노릇은 업습니다. 물론 직업을 딸아 좀 편코 못 편한 구별은 엇지 안치오만 그때도 무슨 직업에나 직업병이 부러다닌답니다. 소위 직업병이란 것은 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가장 걸리기 쉬운 병입니다. 어떤 직업에고 종사하는 분들은 항상 그직업병을 주의해서 첫재는 걸리지 안토록, 이미 걸린때는 곳 치료하도록 주의를 해야만 합니다.

×

붓대로 버러먹는 사람들은 늘 사무실수구석에 처박히어 잇는때문에 운동이 부족되고 소화가 불량됩니다.

따라서 긔력이 업서 보이고 얼굴이 시고 영양도 조치못한동시에 호흡긔관까지 재미가 업서서 폐도 약해지긔쉽니다. 그뿐이 아니라 밥이나 허리나 눈이나 모도 고장을 이르키는데 발의 혈액순환이 나빠진 녀자들은 자궁의 전굴(前屈) 후굴(後屈)을 이리키어 애나히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남녀를 물론하고 신경계통에 장애를 이르키다면 극도의 신경쇠약이 되아버릴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직업의 괴로운 병으로는 글씨를 못 쓰는 병입니다.

다름 때는 괜찬다가도 붓만 잡으면 고만 손까락의 근육이 움즉여지지 안습니다.

×

옥외(屋外)에서 막버리하는 사람들이 흔시 떱고 공긔가 간조한 방에서 오래ㅅ동안 로동을 하다가는 열사병(熱射病)을 이리키게 됩니다. 그 반대로 긔온이 얏고 습긔가 만흔데서 늘 일을 해 오는 광부(鑛夫)들은 안구진탕병(眼球震盪病)을 이리키게 됩니다. 그런로동자들에게는 그 이외에도 여러가지의 직업병이 무수하게 잇습니다. 위선 류마리스 가튼 것도 그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더욱이 란팡속가튼데서 일을 하든사람들은 한층 심합니다. 어깨가 구더지고 어깨가 아픈등 별별 병이 다 딸아서 생깁니다. 그네들도 조석이 일정치 못 하고 또 조석을 먹고서는 곳 로동을 하기때문으로 소화불량은 면치를 못 합니다. 소화불량이 잇고 보다 하로 세끼를 도바도바 먹는다고 치더라도 영양불량 또는 거긔딸아생기는 모든 고장을 면키어렵습니다.

각공업회사에 종사하는분들은 공업중독(工業中毒)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백분(白粉)을 맨드는 사람들은 백연(白鉛)을 취급하는 관계로 연중독이되어 중풍이 되기 쉽고 한난계(寒暖計)를 맨드는 사람들은수은중독이 되야 그역시반신불수가 첨경입니다 그런데는 하나 둘이 아닙니다. 석냥회사가튼데서 린중독(燐中毒)이 되는날이면 뼈가전부 썩어지고 또 망간을다루는데서 거긔중독이 되는날이면 미처서 깔깔깔웃다가 죽습니다 이런무서운 직업병은 걸리는 때가 거의 최후니까 더한층 특별한 주의를 요구합니다. 그당자들보다도 회사경영자들이 그만한 설비를까 시설이랄까 완전히 해 노하야 한니다.

映畫「小公子」 (十一月十八日부터 府內劇場에서)

朝鮮日報讀者優待券

階上七十錢을五十錢으로 階下五十錢을四十錢으로 小人 一四十錢을三十錢으로 通用

一人一枚

왕자와거지 ⑲

마ー크·토웬 作 崔秉和 譯

이러케 말하는 사람을 보니깐 입은옷이라든지 모든것이 씩씩한 군인(軍人)가튼 남자입니다. 옷은 처음에는 퍽조흔감이엿스나 한벌을 가지고 몃해나 입엇는지 빗은 바래고 모사리는 갈려지고 금테두리는 거렁자도업고 목아지는 구김살이 자펴잇섯습니다. 그러나 허리에는 녹은낫습망정 긴 칼을 찻습니다. 못된사람들은 더욱 신들이나서

『이것바라. 왕자가 한사람 또 생겻다』하고 도적놈으로 인정을하고

『모다 정신들차려라 저놈의 눈이 이상스럽지 안흐냐?』하니깐 또 한사람이

『그놈은 그냥 내버려두고 우리 조놈을 강속에 집어넛차』이말을 들은 한사람이 왕자를 붓들라고하얏습니다. 이것을본 군인은 눈깜작할사이에 빵을갈겨 너머트렷습니다.

『이놈바라. 사람을 마갈긴다. 이놈을죽이자』

『거방진놈을 죽여라』소리를 군호삼어서 사방에서군인을향하야 뎀버드럿습니다

군인은 날새게 벽에가기대서서는 팔냥개비와가티 칼을 휘둘럿습니다 이칼에 찔린사람은 눈깜작할동안에이곳저곳 씨러지고 밀물가티 몰려드는사람들은 씨러진사람들을 발고너머들오므로아모리용감한 군인이라하지만 점점위태해갓습니다.

바로그때엿습니다 별안간 요란한 나팔소리가 들려왓습니다 그나팔은 대궐나팔로 지금급히 연회장으로가는길이엿습니다 사람들이이리저리 배키는통에 군인은 왕자의손을 꼭잡고 어대로인지 사라저버렷습니다 연회장에서도 대궐나팔이 울려옴으로 무슨일이생겻나하고 갑작이 춤들을 끄치고 잠잠하엿습니다 대궐서온사신(使臣)은 여러사람에게향하야

『폐하(임금님)께서는 지금도라가시엿습니다』하고 엄숙하게 말하얏습니다 이슬픈소식을듯자 여러사람들은 일제히 머리를숙여 묵도(默禱)를 올린후에 일동은다시 무릅을꿀드니

『신국왕폐하만세』하고 부르지젓습니다. 그소리는 연회장이 떠나갈듯하엿습니다 톰은 너무기가막혀서 눈물이 또그렁케든채 이광경을 바라보앗습니다.

왕자와 마일스·헨뜬은 뒤길속으로 해서 강가로나왓습니다. 두사람이 런돈다리곳까지 왓슬때 별안간 칸티가 달겨드러 왕자를 빼슬랴고하므로 마일스·헨뜬은 칸티를 혼내여 쫏차버린다음 왕자를 데불고어느조고마한 려관으로 드러갓습니다.

『폐하가 도라가시엿다』는소문을드른 왕자는 놀라움과 슬픔으로해서 기절할번 하엿습니다. 세상사람들은 무서운 임금님(暴君)이라고들 햇지만 이세상에서 제일귀애해주던 아버지를 영영다시 만나볼수 업슬것을 생각하면 서름이 북바처오르고 눈물이 쉴새업시 흘러내렷습니다.

적은 왕자―지금은 국왕(國王)은 주림과 피곤으로 겨우 침대앞까지와서 그대로 쓰러저 버렷습니다.

『밥이되거든 이르켜다우…』맛치잡고 대처럼숨업거리드니국왕은 잠이기피 드러버렷습니다. 헨뜬은 우스면서

『이녀석바라. 말 한마디업시 제자리가치 드러가자는구나 제가 황태자라고떠들드니허는것까지도 황태자인체를하는구나. 불상하게도 여러사람에도 놀림감이되여서 및천나보구나. 참악가 여러사람들과 싸우는것은 씩씩해 보이든데. 자는얼골은 정말 황태자처럼 점잔코도 귀엽게보이는데. 나는 이애형이되여가지고 이애를도와주어야하겟다.』헨뜬은 고만왕자에게 마음이잇끌리여 자기웃까지 버서서 덥허주엇습니다.

얼마후에 한사람의급사가드려와서 김이무럭무럭나는음식을 조고만테불위에 놋코는 나갓습니다. 나갈적에문을너무요란스럽게 닷치는바람에 소년은잠이깨여서 벌떡일어나드니 기뻐얼골로사면을 휘둘러보앗습니다.

『바람』

오오 바람이
너는 어째 자지 아니하고
이리로 저리로
울면서 헤매는가
서쪽에선
소낙비를 모라오고
검은 북쪽에선
함박눈을 모라오나。

(글쓴사람 윤태웅)

콜로라튜라·쏘푸라노

朴景嬉孃獨唱會

오는 二十一日밤七時半 府民館에서

主催 京城女基靑 後援 本社學藝部

유―모어小說

姓女씨 (十)

金熊超 作·畫

戰績의記錄(5)

『그래 정말 집에 드러갈 용기가 잇나?』

태하군도 벌써 게거품을 손장험이다 남의일 갓지 안엇든접니다.

『드러가면 갓지 별수잇나』

민보군은 이러케 큰소리는햇지만 아래턱을 썩썩비비는품이 속으로 은근히 겁기는모양이엇습니다.

『뒤는 안미러와도 방귀가작고나오는셈인가. 그러케 힌소리할께 아니라 할말은 바루하구 어떠케 일업도록 꾸며볼일이야 우리만해도 자네선배요 백전로장들아닌가』

『그러치 그래. 부재단언하고 우리가 드려야 일이 무사하게되네』

관수군도 맛장구를치며 나섯습니다.

『아―니 이사람들이 누굼 사랑발림을 하는셈인가』

『사랑발림을 아는것보니 무던히 영리한편일세그려. 그러나 자네일을 무사히 페이도록하고 술한잔 어더먹는대자 그것이 사탕발림될께 뭐잇나. 그러지말구 우리 가티가세』

『어델 가티 가?』

『이사람 왜 딴전을 작구 버리나 자네집엘 가티가잔말이지 요리집에 가잔말은 아닐세. 우리가 가서 한참 어릿광대노릇을 해야되느니. 어릿광대라도 자그마치 세사람이나되니까 좀 힘드는노릇인가』

『아―무렴 힘들고말고. 벨·합스토써―커스가튼데서도 어릿광대는 둘뿐이데』

이러케말하는 태하군은 벌서어릿광대 노릇을할듯이 기묘한포―스를 취해가지고 담배연기를 뿜고잇섯습니다.

말붓하기가 무섭게 팍팍대꾸를하는 민보군이 이번에는 웬일인지 잠자코잇섯습니다 눈을 끔벅끔벅하고잇는품이 여페서벼락이 금시떠러지기 전에는 꼼짝아니할상십습니다. 관수군이

『이사람아 벌서 이러케 구더버리나?』

하면서 뒤통수를 두어번 툭툭첫스나 목아지까지 구더버렷든지 아모 반응이업섯습니다.

『허―. 퍽기가약한 사람이군, 뇌막염기운이 난모양인가?』

『뇌막염기운이 잇거든 가만내버려두게. 질투조시르다간 바람나리』

이번에는 몽백군이 헤이룸우에 걸터안저 이주거리기 시작햇습니다.

『……몡지가 저러케크니 푸른똥은 안쌀께비만 천이나야 저병이 낫게될걸!』

『자, 회자는 장지 안정을 시키기로하고 갈준비나하세』

세사람은 민보군을 남겨노코 압서거니 뒤서거니 회장실로모드려갓습니다.

한잔 버려 노앗다 십허서그런지 모두 얼골에 희기가 도랏습니다. 태하군은 세면기에 머리치장을하느라고 세면기에 머리들 처박으면서 면도칼 업는한탄을 햇습니다. 관수군은 물에손꼿만 조물락조물락하다가 체경아페서서 넥타이를 고처매고 잇섯습니다.

『웬모양들을 그러케내나. 친구부인아페 나가는데두 그러케모양은 내야될까?』

몽백군이 변소에서 나와혀대끈을 졸라매면서 한마디거렷습니다.

『친구의안해거나 누구거나, 녀성아페나서자면 의관이 단정해야안되나. 그게신사의례절이지』

관수군이 바다넘것습니다.

『키키―한소리말게절은녀자아페나갈때나 그래지 할머니아페나갈때도그랫나?』

다시한번치고드는 격입니다.

『가만내버려두게 저사람은 제혼자먹을작정인지 뒷간에드러갓다가 공복이되어나왓네』

태하군이 손수건으로 얼골을 비비면서 관수군의편을 드럿습니다.

이대일! 말주변에 드러서는곳죽어도 남의미테안들랴는 군들이라 장차나올 몽백군의 말한마디에따라 얼마마한 접전히생길라는지! 그러나 형세가 슬쩍 호전해버리고마럿습니다.

『내가엽동을 굶어드래도 그배그대로잇지 더드러가겟나. 일진행이나 잘시키세』

영남사람문자로 워낙문둥이때보나 더세군들이라 오늘 술한잔은 떼어논당상으로 아랏든접니다. 그래 몸치장을 말숙히하고 회장실을 나와 다시 사무실로 드러왓습니다. 인제가방을 끼고 모자만 쓰면 정식사퇴가될게니까요.

『옹?』

문터에 드러서는 길로 관수군이 놀랏습니다. 뒤니어 두사람도 또어―를 다들생각도 안코 빽빽이 서잇섯습니다.

『엽방에 잇슬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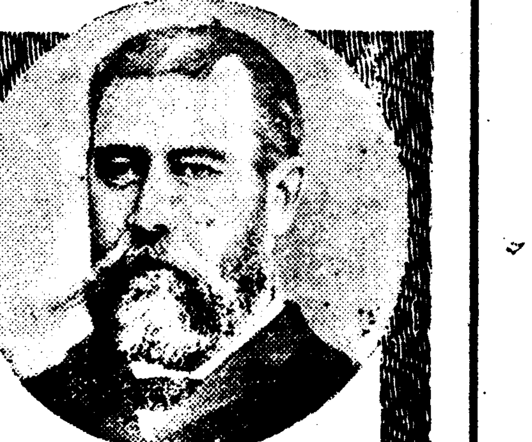
관수군이 이러케 말하면서 압장서서 영업과로 몰려드러갓습니다.

『?……』

『노렷군. 다라낫서……』

영업과 그너른방이 텅뷔어잇기는 벌서 사십분전이니까요.

惱む人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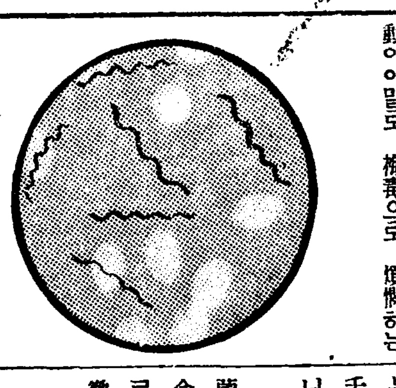
ベルツ博士

梅毒 의原因이되는 微菌은어떤것인가? 이것은梅毒으로 煩悶하는분은勿論健康한사람도 알지안허서는아니됩니다 微菌의知識을알어두면, 如何이무서운가를알수잇습니다.

무서운梅毒의 治療와注意

梅毒의微菌은

植物과 動物의中間生物로全體의形은 라선의 바눌과가든지푸쓰赤痢菌의 十數倍의 기리가잇고 運動이 非常히 活潑합니다 그래서 비암과가티 구불구불움즉이거나 지렁이이와가티 伸縮運動도하고 또 새우와가티 몸中途가 잘리어서 꼬움즉이는運動을 합니다, 特히 微菌의兩端이뾰족하야송곳과가티 螺旋運動으로 人體組織에 드러가는것이 그의가장, 得意로하는바로 이運動이야말로 梅毒으로 煩悶하는분이 누구나 苦痛을밧는것입니다.



또 繁殖力

이非常히旺盛하고梅毒菌은 五個나十個로分裂하고 또繼으로도 二分된다는繁殖力으로서實로一個가二十個나되므로 萬若一個라도 血液中에남어잇스면 右와如히分裂繁殖하야 猛威가자못심합니다 大體梅毒菌이라는것은以上과가티 무서운것이므로 그治療가姑息하고 不完全하면곳 血液을 通하야 全身에퍼저버립니다,

特히사람들의口中肛門○門等은그들의가장適當한 住家로서이곳에寄生하야 無限히繁殖하고發育하는것입니다 그래서微菌은汚血液보다도새로운 寄生主를엿보고잇습니다 그러므로

清淨無垢한

新妻等은萬若男便이 梅毒이잇스면곳感染합니다 特히婦人은感染部位가 大槪는子宮이므로 알지못하고지나서 十年二十年後에무서운第三期梅毒例를들면. 狂人이되던가 手足을못쓰게되는麻痺症이잇던가 深在性(肉骨을써히다)의腫物이생기던가 回復할수업는悲慘한境遇를맛나지안흐면아니됩니다 勿論男子이境遇에도同樣으로不完全한 治療를하면 微菌은二期三期로惡化하야 皮膚粘膜의深部와內藏에惡性의病變을이르키어 筋骨을破壞하고는畸形不具로서또는죽게되는것입니다 그뿐인가 이微菌은二代三代遺傳하야그慘害는無限이업습니다

그러므로

梅毒治療도

姑息이거나 途中에서中止하는것가튼일이잇서서는 決코 낫지안습니다

無智한사람은 梅毒의潛伏한때나혓되고생각하야 治療를中止하는분이 잇지만이것이야말로 危險千萬으로 病勢는進行하고 잇습니다.

그래서이梅毒을 어떠케하야殺菌하고體外에 排泄하는가이것이 今日도아직研究의 하나로서참으로血液과身體組織에浸入하야잇는微菌을根治하라면

內服療法이

가장安全한데 內服藥ベルツ丸이 初期晩期의 區別이업시 一般梅毒患者에게 歡迎을 밧는것은 이까닭입니다 그러므로 ベルツ丸을 連服한분의 結果를보면血液은 充分히淨化되어 따서 新陳代謝가 極히良好하게作用합니다 ベルツ丸을 服用하야오직

血液의淨化

뿐만아니라 胃腸도 조화지고 顏色이 健康色이되면 體力이增加하는것도 各內臟이 整齊되는까닭입니다

ベルツ丸은 實로 그主能範圍가넓고 一般梅毒體毒、痳毒을비롯하야 濕毒令毒發疹여드름 부스럼等皆들할것도 업고危險한 遺傳梅毒과 腦梅毒脊髓癆 腫氣다시神經痛 류마치쓰動脈硬化 便祕等梅毒性疾患을 不問하고 每日

正當한效果

를보힘니다 現在는 멀리諸外國에도 躍進하야 더욱 藥效의眞價를 놉히고잇습니다 以上말한 梅毒菌의 이야기와 將來의慘害와를 생각하야 一日이라도速히 正確한 ベルツ丸內服療法을 敢行하기를 誠意를 다하야病毒으로 煩悶하는분께 推奬합니다

梅毒과體毒 梅毒性부름에

베루쓰丸

藥價 六日分一圓、十二日半分二圓、卅五日分五圓、七十五日分十圓、廿日分三圓、百六十日分(德用)卅圓 送料四十二錢、代引十五錢增

梅毒、體毒、痳毒、横痃、遺毒、令毒、脊髓癆、腦梅毒、遺傳梅毒、류마치스、腺疾、皮膚病梅毒性부름、여드름、腦硬化症、梅毒性便祕等에 梅毒性疾患에良効잇슴

東京市日本橋區濱町三丁目四十番地 發賣元 鈴木日本製薬社 社主 鈴木清二 振替東京一〇五番 電話濱町八〇番九〇番

代理店 京城 木村、新井 釜山 大黑、藤田

安産 키爲하야!

楠林醫學博士 監查 片瀨醫學博士 推奬

カルシユーム時代를建設하라!

自古로 難産에는 高價인鹿茸가루를 服用하엿사온바 此鹿茸의 主成分은 カルシユーム 이외다 ワタカルシユーム錠은鹿茸과한가지로カルシユーム를主劑로하야 거기에 數種의 高貴藥을 配合한것임으로 姙婦와産婦가 이약을 服用하시면 安産은 問題업시됩니다 俗談에 産婦가 産室에들어갈때에 自己의신어든 신을도라보며『저신을 내가 다시 신게될가?』하는人生最大의 걱정은 問題업시 解消됩니다

健全한玉童子는! 健全한母體로부터! 健全한母體를맨들기爲하야는―母體의健康素로도되며, 胎兒의發育素로도되는 ワタカルシユーム錠의連續愛用이安産秘訣의第一急務!

片瀨醫學博士著「安産키爲하야」란冊子無代進呈

大阪道修町 和田卯助商店

ワダカルシユーム錠

와다가루슘

담배考 (一)

담배文化

湖岩

요새 담배갑시 暴騰하야 一般愛煙家는 크게動搖를 일으켯다.

統計數字를 보면 오늘날조선에서 담배代金으로 每年消費하는金額이 四千三百萬圓에 達한다。거기다가 또 이번二割引上으로해서 일층더 激增을 보게되엿다.

우리네가 이러케巨額을 支出해가면서 吸煙하지 안흐면 아니될理由가 어대잇는가. 그러나 이것은 理論을超越한 習俗問題이다. 담배는 嗜好品이라지만 한번 習性만되면 차라리 食事를 廢할지언정 吸煙은 廢할수 업게된다.

朝鮮人의 愛煙癖은 中國人의 愛茶癖以上으로 牢不可破할 一種民族的習性을 일우엇다. 食後第一味, 客待初人事는 吸煙의神髓를 深得한語句로 담배가 個人의嗜好에서 一轉하야 社交上不可缺할 禮節의하나이 되지도 오래다. 무릇 이가튼禮節은 吸煙하는社會에는 거의通有한바나 茶나咖啡를 飮用함을 모르는朝鮮人사이에 다만담배까지 업지안는다면 그야말로 單調한生活이일층더 乾燥無味하게 되고말것이다. 그럼으로 이런方面으로 볼때 담배는 嗜好的生活上 一種嗜好品도는 嗜好의作用을 하고잇다.

그러나 담배가 生活에 미친影響으로 말하면 어찌 이에만끈치랴. 그로해서 생긴說話가잇고, 그로해서 생긴歌謠가 잇고또 그로해서 생긴詩文이 잇다 이들의內容이 반드시煙草의嗜好에만 限한것이 아니오, 혹이는 담배의利弊를 論難하엿고, 그중에 甚하면 害點만을 指摘한것도 잇다. 嗜好家論을 吸煙할때 그뿐에 잇서는 前者보담 도리어後者가 만흔것이다. 어쨋든지 煙草에 關한說話歌謠及 詩文을모조리 蒐集한다면 훌륭한 一部담배文學이 되리라고 밋는다.

담배가 옛날朝鮮에잇서 한창안 國際的歡迎을 밧든것이 되엿도 엇섯다. 勿論 이것이 人蔘처럼永續的이 아니오 一時的에 지내지 못햇스나 朝鮮人이 담배販賣로 一攫千金의 黃金을 어더 아돌이온利의 黃金世界를 實現하엿슴은 담배歷史의 가장味잇는 한토막이 될것이다.

담배文化의 東漸한 來歷을들때 그의 傳播經路以外에도 情緖한常識에 올거된 禁煙問題가잇는것을 니저서는 아니되겟다. 吸煙의初期엔 東西各國이 모다法令으로 吸煙을 禁止또는 制限하엿다. 멀리 歐洲의例를 들것업시 가가이 그當時東洋日本을보드라도 基督敎와함께 吸煙을嚴禁하엿던이 잇섯고 淸도滿洲에在하엿슬때 禁煙違反者에게 處斬의嚴命까지 내리엿던이 잇섯다.

이두隣邦이 一時이러첨 모다禁煙政策을 取하엿슴에 反하야朝鮮만은 꾸준이 寬大한態度로臨하엿스니 이것이 東西吸煙史에 特例드믄 일이다. 韓國의門戶를 통로서 드려온煙草는 거의 一週의勢로 全社會에 퍼짐새 朱某의煙禁을쓰에 차여잇는朝廷의 政府로서 이를 그대로放任해두는것은 容認가 고지를리지 안는다. 그러나 朝鮮에서도煙草의弊害를 論하기는 하면서禁令을 發하기까지에 이르지 안햇섯다. 거기는 果然 무슨理由가잇섯더이니 우리가 그理由를한번究明할 必要가 잇다.

그리고 또한가지 注意할것은담배專賣의主要이 朝鮮에 일즉부터 생겻든것이다. 明治政府에서國庫의收入을 爲하야 담배專賣法을 맨든것이 最近日露戰爭때이엿는데 朝鮮에선 이보담 훨신압서서 적어도 百年前에 具悅으로 말미암아 倡導하엿섯다

이박게도 담배에關한 故事를들추어 내려면 際限이 업겟스나 便宜上 이모든것을 「煙草文化」란이름아래 總括하야 말하려한다

人間學의對象과 그本質的制限

(二) 金基錫

主體로서의人間 또 그客體로서의 人間의環境 이것은 엇던交涉및聯關을가지는것인가. 人間의生活이란 人間및 自然에대한人間자신의부단한交涉에서 構成된다。存在의 世界는 무론 人間의意識에 內在된것은아니다。人間이 그것을意識한다고 비로소存在하고 人間이 그것을意識하지안흘때 마치내消滅하는觀念의世界가튼것은아니다。

우리들을에워싼 存在의世界는 그것이 人間을싸면서 또人間과 한가지로 그자신의現實性을主張한다。人間이 자기를意識하기를 기다려서 存在하기는커녕 人間이 이地上에 나타나고안는것을 問題도 삼지안타십히 그자신의 存在性、運動性을確保한다。여기서 우리들은 實在의客觀性을主張하는 現實主義의 正當한論據를 是認또擁護해야한다。意識에잇서서 存在를 說明하려는것은 意識이 본대 그자신 어느意味의存在로서의 意識임을 모르는 한개 僭越한企圖에 지나지안는다。存在는 意識을버서나서 또 意識조차도 그속에품는 한개實在의世界를보인다。人間은 말하자면 이實在의世界속에서 자기와마조서는環境에대하야 부단히 대여들고 싸호고하는 어느意味의主體의世界가아닐가。

存在는 人間의意識에 內在하는것은아니다。그러나 存在는 모도 人間과마조서는 人間의環境가튼意味를가지지 안허서는안되다。人間의環境이되지안는 따러서 人間으로부터 전연交涉하는것이아닌 純粹한自然가튼것이 어느구석에잇는지도모른다。그러나 이것은 人間이 그속에서 나고살고 또죽는現實的인世界는되지못한다。人間과人間의 環境이 서로制約規定하는데서 짜나아가게되는 歷史的社會的인實在의世界는되지못한다。

現實의世界는 첫재 人間이그속에잇고 또人間과마조서는 客體의意味를가진것이 그속에잇는 具體的關聯이아니면안된다。人間의生活은 단순한 認識에그치는것은 아니다。行動에로 實踐에로 기운차게 달리는途程이 이달리는 人間과 아울러 人間이그우에서 난위는 原野가 우리들이 말하는 現實의世界란것을 構成한다。

人間과 전연交涉하지안는 存在란것이 잇슬것인가。人間의意識에 드러와 마치지안는 物自體란것이 잇기는잇다。그러나이 物自體란것이 人間에게 주어진다는데서 人間으로 더부러어느意味의 交涉가튼것을 가진다는데서 비로소 客觀의 世界에대한理性의 認識이란것이 可能한것이 아닐가。처음부터 주어지지안는 世界를 아모리 정도된 範疇를가춘 理性이기로서니 認識해내이는 재주가 잇는가。「깐트」는認識의 主觀과 그客觀과의사이에 도저히 넘어설수업는 크다란 溝渠가 잇다는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친다。그리고 이 溝渠이편을理性、이溝渠저편을物自體라고 부르면서 人間의理性이미칠수잇는 根本限界란것을우리들에게 가르친다。

「깐트」의見解는 人間의認識에關한이야기인한에서 우리들은만흔것을 배워야한다。

그러나 人間의理性이 마치내너머서지못하고 그만두는 이溝渠를 人間의生活이란것이 보기조케너머서는것이아닐가。「깐트」의 이른바 久遠한溝渠를 넘어서서 物自體의 樹林사이를 마음대로거니는 人間의 行動과實踐이 物自體가 認識의對象은아니면서도 理解의對象 體驗의對象은되어야한다。여기서 우리들은認識論과 손을난호는 哲學本來의 넓은原野 지시로 넓은原野에나선다。

哲學은 무론 생각하는일이다 그러나 머리로만생각하는일이란것에대한 몸으로생각하는일이란것이업슬것인가。哲學은 지식으로 오랜동안을 머리로만생각하는哲學이되여왓다。이리하야 잡잡한 思惟 고요한 觀想인데서 그자신의 구차스러운限界를 직히나려와다。그러나 哲學은 본대머리로가아니고 몸으로 생각하는 哲學이 되어야할것이 아닐가。몸으로 늣기고 헤아리고하는理解 解釋 反省 想念 體驗가튼것에잇서서 哲學은 그자신의살진原野에 내여달어야 할것이아닐가。

協展畵報 (四)

金瑢俊氏作 秋陽

第十五回맛는 協展印象記

(五) 安夕影

그런대 이李鍾禹氏의 作品에서 欠을 차저낸다면 오래된白紙窓을 새여드러오는 그러케조흔 光線이 室內에안진人物에와서 效果가 사라진것이다 아모래도 室內의 光線이 太陽光線이 白紙窓을 새여드러오는 그것 보담은 弱지안흘가한다

▲林水龍氏 의裸婦는 애쓴作品이다 그리고 筋肉이나 骨格가튼것을 제대로 보히게하랴고 畵筆에 힘을 드린것가태보힌다 퍽修練된作品이다

▲金重鉉氏의「秋郊」「古宮秋色」두作品은 이분의 平素의 作品에서 티나는點을發見치못하겟스나 平凡한中에서도 建筆로보힌다 그러나 이분의人物畵와 風景畵와는 全然다른 畵家의作品가튼것이 特色이라면 特色일수잇스되 여기서아직도 氏가 彷徨하고잇지안는가한다 나는이作品을 習作으로보앗다

▲李濟昶氏 이분의作品은 드물게보는터에 이번作品에 村家와秋庭一隅는 반갑게보앗다 누구나 그의實力이 小品에서나 大幅에서나 나타나는것이지만 나는氏가 大幅을 때때로 製作해보는것도 조호리라고생각한다 이번두作品中에서 秋庭一隅는 色彩本位나 村家는 興味잇는作品으로 보앗다

▲朴廣鎭氏의 海는 努力한作品이다 그러나 너무도 技巧中心이 아닌가 생각한다 바다를 보는 사람이 이런비츠로 보히는때에 바다를 조와하는이도 잇겟지만 바다가、거룩하다든가 무섭다든가、하는 그런 感情은 떠난다하드드도 바다에서 밧는 心的影響이 업슬수는 업슬것이다。그러타고 나는 映畵的인 効果를 말하는것이 아니요 繪畵에 잇서서도 調子의 心理를 捕捉한다거나 어찌하는 그런 波及수는것이 업슬수업슬것이다 그러나 이作品을 平凡하다고 하는 말은 아니다

▲金周經氏의 이번 哈爾賓風景으로 氏의作品을 오래만에 對하게되엿다 옛날氏의作品보담은 가벼운作品이다. 이小品에서 더깁게印象되지안켓다

▲朴振明氏의 「少女」는 全體의氣分이조코 그少女의表情가튼데에 그少女의環境을보혀준것인데 그少女의치마속의 다리가 매우疑心스럽다 여기서 이人物의下體가 破損된듯한늑김을준다 그러기에 裸體畵를 만히그려볼必要가잇스며 옷을 이필때에 먼저 옷속에싸힌人

品中에서나는 秋陽을愛惜하겟다 이作品이 이協展에서 異彩가잇다 새로운 그림일것이다

▲張勳氏 이분은 먼저에도말을하엿지만 畵面을 만히그린분으로 外部에發表는안되엿스나 人物에專心한분이다 그런데 이번에두作品에서 女人像을推獎하겟는데 이女人의 압할이 짜르듯하다 全體의 비치조혼데 老練한作品인대신 生新한 作品은아니다 이분은古典에서 나와서 다시古典으로도라가는이인지 또는 古典에서나오랴는이인지는모르나 將來氏는 確實히 새것을創造할 생각한다 春桃舞는 未完成이라니 말을할수업서도 色彩가조혼데 色彩를벗기면 그옷의부피라든지 感味가 銅像가틀것이다 그러나 이분의作品亦是 이協展에서 조흔作品의하나임을말한다

그다음 李昞圭、洪佑伯、申鴻休、其他諸氏의作品은 印象이稀薄하기에 筆者의 不敏한바를謝하고 못쓰고만다

讀者社交室

▲여러분들께世界文學全集「モンテクリスト伯」(第二)가잇스면 通知하여주시요 高價로買入하겟읍니다 發行은 新潮社에서햇습니다
全北錦山郡珍山面邑內里 柳永基

▲社交室을보시는讀者諸先生님中 藥種商講義錄最新版을 가지서서讓渡할意向이게시거든 實價格을 社交室로알려주시면 買受하겟습니다 (貴下의 住所도發表하야주시기를바랍니다)
平北宜川邑川南洞三五一 金琦業

▲民村作「故鄕」의 發行所와定價를 가라처주시는분을 感謝히生覺합니다
平原 金基柱

▲讀者諸氏中 記書籍이有하신분으로 讓渡하실분은 各其定價를 本人이나 社交室로 알여주시면 感謝하겟나이다
李光洙先生著「흙」下篇 大盜傳 永遠의微笑 第二의運命
忠南江景北町 姜一昌

▲日本大學學長山岡萬之助博士述 刑法講義(口語體로著作된冊)을 讓渡코저하오니 希望하시는분은 左記住所로通知하시요
平北龍川郡內中面南興洞 崔泰鉉

▲小生은藥草栽培를志望합니다 讀者諸位께서 經驗이게시면藥草種類와 採取方法、販賣處、價格注意事項을 자세히 下敎하시던지書籍參考用을 주시면 사례하겟습니다
京城館洞町五七ノ五 申天貴

▲讀者諸氏 早稻田大學文學講義讓渡하실분이게시면本人이나左記住所로 通知하야주시면 感謝하겟습니다
慶南官寧郡富林面立山里 安炳潤

▲韓雪野氏作「交叉點후미끼리」
民村氏作「안개속에核三이」
興變氏作「寂寞」
右의三作品은 어느때 무슨出版物에發表되엿든것입니까 아시는분은 本報讀者社交室로通하야下示하시면 감사하겟습니다
市內 哲生

▲社交室讀者諸君! 將來 小說家詩人 희곡가를 꿈꾸며 邁進하는 젊은 學徒들이여 諸君에게 諸君自身을 면달지도해주는 先生이잇습니까? 서로 뜻만품고 아까운 素質을 썩이지말고 한그릇(但 京城에 本部를 두고)을 맨들어 創作品을 交換비평해가며 向上할 도리는 업슬가요 이리하야 압날의 朝鮮創作界를 우리가 占領할 勇氣、天才를 뭇도드시다. 有意하신분은 社交室로 通知해주십시요 (KMK生)

▲多忙中未安하오나 地方狀況에關한書籍을 編纂하려하압는대 原稿納本는 幾本을 納付하오며 檢閱許可後書籍은 印刷中일지라도發賣後約手附金을 受取하여도 出版法上無關하온지 本社讀者社交室을通하야 詳細下敎하여주시기를바라나이다
咸興盤龍山下 一讀者

▲韓國時代官報(全部或은一部)를讓渡하실분이게시면 한번通知하야주십시요
京城府明倫町三丁目六七ノ七 李甲燮

▲朝鮮日報讀者諸氏여! 本籍은鎭南浦이고 住所는京城이며十年前에梨花女高를卒業한후 教員記者 外交員의生活을하고잇는朴確實氏가 至今어데서 무엇하고잇는지아시는분이게시면 社交室을通하시든지 左記住所로 藥書一枚던저주시면 千萬감사하겟습니다
平北鐵本町一八八의一五 崔正益

▲月前 朝鮮日報에發表한 柳致眞氏作 戱曲「春香傳」第一幕二場에서 終章인 三十一回만을좀 빌려주시면 讀後即時보내드리겟습니다 諸氏中 硏究材料삼아 收集하신분은 꼭 좀借讀케하오면 感謝를 마지안켓나이다
慶南東萊邑校洞三三ノ六 朴文壽

▲左記書籍을 讓渡하실분이게시거든 下記住所로 通知하야주시면 感謝하겟나이다
記
一、速水滉著(岩波書店發行)增訂改版論理學
二、倉田志著(白揚社發行)唯物辯證法講話
住所 江原道襄陽邑城門里 朴亨緖

新刊紹介

▲詩人部落 第一輯 發行所 京城府安國町一五三 詩人部落社 振替京城 一二一七八番 定價二十錢

▲文部時報 第五六五號 發行所 東京市 京橋區銀座西 七丁目一 帝國地方行政學會 振替東京一三番 定價二十錢

▲朝鮮鐵道協會會報 十一月號 發行所 京城府古市町四八三 朝鮮鐵道協會 振替京城 一一〇三八番 定價五十錢

가장確實또迅速히口中의細菌을一掃한다

라이온齒磨

使用할때부터、꿋나는때까지、能히香味의清新을갓는近代趣味의

粉齒磨新罐入!

반드시여러분의白熱的歡迎을바드려라고 밋습니다.

定價 金拾貳錢

粉齒磨는、반드시容器에너허서쓰십시요

新發賣 新罐

科學的實驗의 結果는、라이온齒磨의 有効成分이不過卅秒의 口腔作用을할뿐으로 거진完全히 口中의細菌을 排除한다고 立證을하얏습니다

ライオン齒磨本舖 小林商店

連載小說 (不許複製上演)

布囊記 (一六四)

申鼎言 作 金熊超 畵

마저숙기소원(二四)

대체 리선전관이 처음 벽제역참(驛站)주막에서 그 창두를 만나 자긔의 뜻한바 서울로구사(求仕)하러가는 말을 하고 그 창두의 주선을 빌려는것은 그 창두가 그런 힘이 잇슬것을 미든것이 아니엿다。

그 창두는 우선 벌족세가의 창두라고 말할뿐만 아니라 그 위인됨변이 매우 령리하므로써 잘부린다하면 시골가잇는 그동안 남북촌재상집의 관편이 끈치고 또는 생소하게되는곳에 길이 서투르고 심부름하는 눈치가 암만해도 구석이 비는 이철이와、덕용이를 시키는것 보담은 왕청떠게 나으리라 생각한 까닭이엿다。

그런데 경성에 도착하자 우선 주인할 집을 그 창두가열는 마음에 드는곳으로 잡어줄뿐아니라 그 동안 메칠가웃두고 보아도 그 행동과 수단이며 눈치가 과연 대가집에서치여난 하인인것을 잘알것고 더구나 주인집 늙은이가 설명하는바 그 창두의 래력을 듣을진대 그창두를 더욱 가까히할필요가 엇는것은 물론。 미듬성까지 생기게되것이엇다。

원래 리선전관은 그 천성중에 두가지 특성이잇스니 하나는 남의 어려운일을 잘 구원하는 의협심(義俠心)。 또하나는 사람을 부리되 애초에 의심이 생기면 부리지를 안코 이미부리어상은 탁 미더버리는 신인심(信人心)이 대단하얏다。

그래서 그 적지아니한 가산을 탕진한것도 그 두가지 특성으로써 말미암은것이요 그천성이 어리석거나 또는 차고더운 염양(炎凉)을 분별치못하는숙맥이 되여서 그런것이 아니엿다。

그래서 그 창두를 알게되후로부터 그창두를 밋게되것도이미 자긔의 수족과 가리 부리려고 생각하엿슴으로 그와가리모든일에 의심을 두지아니하고 자긔가 몸소하는것과 가리 밋게되것이엿다。

그런데 주인집 늙은이의 무엇게 설명하는 그 창두의 래력을 자서히 들으즉 그 창두는 여긔 저긔 단녀가엿는 순연한 협잡군인것을 잘 짐작할수잇게되엿다。

과연 그 창두는 면치웅에그 주인집늙은이가 말하든것과가려먹기에 낡이난 협잡군이엿다。

그런데 그 창두가 황해도를 내려가든 뜻도 역시 그런 수단을 부리려고 가든바 다행히 벽제역에서 리선전관을 만나게되어 종래로부터 아주 익숙한 수단으로써 리선전관의 그 피

리귀의집 씨종이 아니라 제가 스스로 창두의 복색을 채리고 남북촌으로 도한 어떤경우에는 시골까지 내려다니면서 시골선비가 벼슬을 주선하려는 눈치가 보이면 그 경우를 떨어서 당대 유력한 문무대관의 일홈을 들어 어떤때는 윤방(尹昉)의집 창두。 어떤때는 리귀(李貴)의집 창두。 어떤때는 신경원(申景瑗)의집 창두。 어떤때는 김류(金瑬)의집 창두。 어떤때는 최명길(崔鳴吉)의집 창두。 어떤때는 장만(張晩)의집 창두。 어쨋든 당대 문관편으로 혹은 무관편으로써 세력이 당당한 대관을 들어서 그 벼슬을 구하는 사람의 뜻이 문관에잇다면 문관편으로 유명한 대관。 또는 무관편에 뜻이잇다면 무관편으로 유명한 대관을 들어 그집의 창두라 말하고 또는 그집과 안관계가 어떠하다는 구수한말과 그럴듯한수작으로써 주머니를 혈어나는 돈을 들어 역거온것이니 유방、리귀、신경원등 쳐의 편거를 말하것과 특히 유방의집이 밥혓다는 말은 물론 모두다거짓 말이엿다。

이에 리선전관은 비로소 그 창두에게 속은줄을 알고 분한 마음으로는 곳 포청(捕廳)에긔별하야 그、창두를 잡어 봉두리를하고 십흐나 포청에 말하는것이 도리혀 창피함으로써그도 입을 벌일 생각을 아니하고 오직 자긔의 밝지못한것을 한탄하야 자살할것을 생각하얏스니 그 창두는 벌서 리선전관이 제거 속은것을 안뒤에는 자살하려는것 까지는 생각을아니하얏스나 포청에 긔별은하지 못할것만은 잘 짐작하얏섯다。

그런데 이철이와 덕용이가리선전관이 조치못한 긔색으로써 나오는것을 보고

「나리마님。 어되를 혼자 행차하십니가?」

하고 뒤를 떨어서라는 긔색을 보이엿다。

「오오。나혼자 갈데가엿서。너히들은 오지 말어。」

하고 리선전관은 이철이와 덕용이가 딸어오지못하게 딱 누르고 손살가티 달려갓다。

이철이와 덕용이는 리선전관이 급히 걸어가는 뒷 모양을 보다가

「자!。나리마님 돌아오시는동안 우리도 나서서 어듸고 그 창두놈을 좀 차저보세。」

하고 이철이와 덕용이도 그창두를 차저 나섯다。

알파하모니카 第三回演奏會

알파하모니카 밴드에서는 今般第三回 하모니카演奏會를 市內鍾路YMCA講堂에서 오는二十一日午後七時 에 開催를 한다는데入場料는 場內整理費로 十錢均一이라한다

愛의彈丸 (團成社에서上映中)

라디오

十八日(水曜)

◇午後六時 하모니카와아코—듸온獨奏 一、아코—듸온獨奏 童謠集…(반달、오빠생각、휘파람) 二、오—듸내리、하—모니카獨奏 홈—스위—트·홈…비숍作曲 三、떠블빠스·하—모니카獨奏 東洋의舞曲…루브룰스키作曲 四、아코—듸온獨奏 라파로마…이라더—作曲 五、떠블빠스·하—모니카獨奏 붉은날개…밀스作曲 六、오—디내리하—모니카獨奏 軍隊行進曲…申孝彰編曲 七、아코—듸온獨奏 瀨戶內海의風景…福島作曲 八、오—디내리、하—모니카獨奏 送別의노래…尹琦善作曲 피아노伴奏 申孝彰 尹琦善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同六時三〇分 國語初等講座 高橋平次郞

◇同七時三〇分 趣味講演 流行의變遷 梨專文科長 金尙銘

◇同八時 —京謠歌謠의저녁— 一、時調 二、지름 三、사설 四、小春香歌 五、제비가 六、執杖歌 七、휘모리 八、노래가락 九、늴양 十、압산 打令 十一、뒷산打令 趙英順 金眞紅 張香蘭 李飛鳳 李命山 李命吉 卓福萬 金泰運

第一放送

◇午後六時 (東)

◇同七時三〇分 (東)講話

◇同八時 (仙台)俚謠

◇同八時二五分 (東)長唄

◇同八時五〇分 (東)浪花節

十九日(木曜)

◇午後零時五分 遊覽歌謠 一、遊覽歌 二、뒷山打令 三、금드령타령 四、사슈방아 五、처녀가 閔亨植 宋亨秦 朴玉順

◇同一時一五分 婦人時間 『겨울의化粧』

◇同六時 童謠獨唱 一、풍당풍당(奏) 二、동리의원(奏) 三、집신짝(奏) 四、가울밤(奏) 五、병정나팔(奏) 六、큐피님(奏) 七、참대배(奏) 八、충추는락엽(奏) 秦眞姬 姜林鏡 伴奏 秦實鳳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同六三〇 講演 天性과人格 佛專敎授 金斗憲

◇同七三〇 農村講座(一) 第二高普 金雄珏

◇同八〇〇 獨唱 一、寂寞한가을…玄濟明作曲 二、마르라中마리아마리…카푸아作曲 三、『꿈과거리』…플로로—作曲 四、歌劇토스카中『별도빗나다』…푸치니作曲 五、海邊의노래…成田爲三作曲 六、나포리의배人노래…伊太利民謠 李仁範

◇同八三〇 唱劇調 一、短歌竹杖歌 二、唱劇調 沈淸歌 李東伯 鼓手 池龍九

◇同九時 (東)管絃樂

第一放送

◇午後〇時〇五分 (東)能樂囃子

◇同六時 (大)兒童劇

◇同七時三〇 (東)講演

◇同八時 (長)茶談會

◇同八時三〇分 (東)落語

◇同九時 (東)管絃樂

二十日(金曜)

◇午後〇時五分 映畵이야기 『小公子』 柳寅成

◇同一時一五分 婦人時間 家庭과音樂 洪蘭坡

◇同三時一〇分 (東) 敎師時間 (第一放送에依함)

◇同六時 兒童劇 『매미잡이』 京城放送兒童劇研究會 指揮 南雲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同六時三〇分 趣味講演 煙草이야기 金貫龍

◇同七時三〇分 農村講座(二) 第二高普 金雄珏

◇同八時 管絃樂 日本放送交響樂團

◇同八時五〇分 歌詞 一、길軍樂 二、黃鷄詞

◇同九時一〇分 大笒 盧[illegible]桃 杖鼓 徐山玉 山念佛外 金永根 金一宇 一、산념불 二、寧邊歌 三、기ㅡㄴ아리 四、打鈴 五、방아타령 金[illegible]紅 金[illegible]香

第一放送

◇午後零時五分 常磐津

◇同六時 (東) 이야기

◇同七時三〇分 (東) 生活改善座談會

◇同八時 (東) 管絃 樂

◇同九時 (東) 映畵劇

★曆★

十一月十九日(木) 舊丙子十月大(初六日)

乙巳·火·斗·破

●祭祀破屋에宜함

●小雪二十二日(舊初九日)

●大雪七日(舊廿四日)

面刀後에도滿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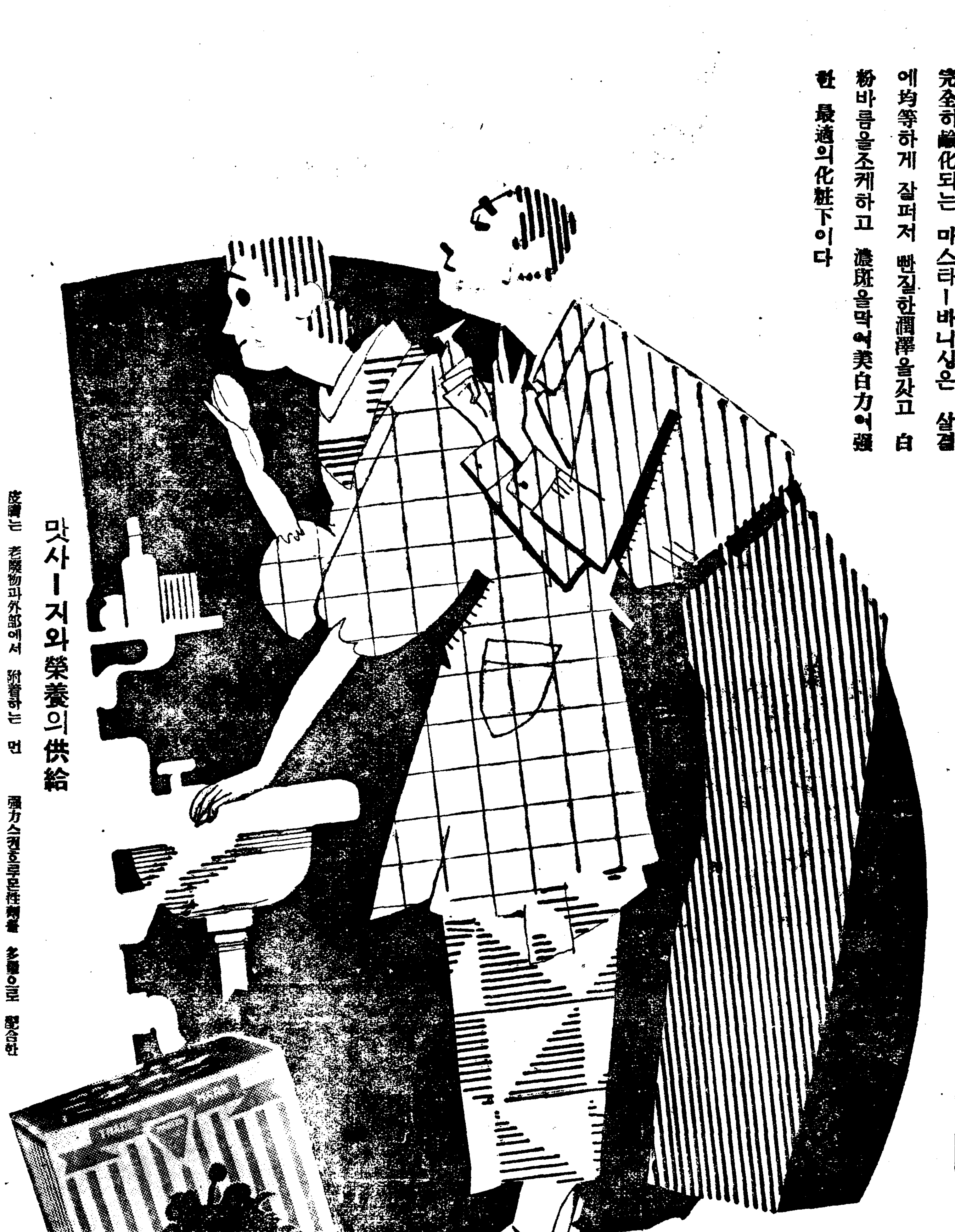
面刀後의皮膚는顯微鏡으로보면은面刀자죽이極히만타 마스타—바니싱는 맷끈하게 살속으로녹아드러細菌의侵入을막고榮養効果가强하고理想的인整肌料다

化粧下에도 써조타!

完全히融化되는 마스타—바니싱은 살결에均等하게 잘퍼저 빤질한潤澤을갓고 白粉바름을조케하고 濃斑을막어美白力이强한 最適의化粧下이다

良質크림을撰擇하는法

狀態	結果
끈적끈적하든지 끈적이지안는크림	脂肪이 석기여잇슴으로 도리혀 여드름、부름의 原因이되고 皮膚[illegible]를 이르킨다
아루가리가强하고 살결에문질러도 容易하게퍼지지안는 크림	살결에크림分이 濃斑이 됨으로 白粉이 濃斑이되기도하고 살결을刺戟하야 모처럼 化粧한것도 밀린다
마스타—의 바니싱은 맷끈하게 살결에녹아드러 均等하게퍼진다	均等하게퍼짐으로 化粧이 容易하게안밀린다 살결을 美白化하며 거칠음을막는다



밤에발으고 아참에살결

マスターコールドクリーム

마스타—코—르드크림

맛사—지와榮養의供給

皮膚는 老廢物과外部에서 附着하는 먼지、티때문에 더러워지고、疲勞하는것이다。이回復에는 乳化가 完全하고 精細度가 맛사—지에 適當하야、獨逸特許의 强力스퀄호루몬性劑를 多量으로 配合한 마스타—코—르드로 朝夕으로 가볍게 맛사—지를하면 살결의早老를 막고 彈力잇는 젊은살결을만든다

アレを止めて・艶々若肌を育む

マスターバニシングクリーム

마스타—바니싱크림

朝鮮酒合同說擡頭 一部業者猛反對

千餘小賣商人에도影響至大 趨移如何가注目處

【釜山】부산부내의 조선약주(藥酒)제조업자수는 전부이십칠개소로서 전조선의다른도시에비하야 단연다수인만큼 순조선인의제조공업(釀造工業)으로서 수위를차지하고잇스며 또 유일의리권(利權)화하고잇다 따라서 그생산고도 일개년에 약사만석을보게되엿다 그리하야 양일천여호의판매인이 이것을소매하고잇는현상이다 따라서 이소매상들상대로 각양조업자의경쟁이 격렬하여지고 가격을할인함으로 자연품질이저하하여감을 방지하기위하야 일부업자로부터합동설을주창하게되자 일부업자와금소매업자등의반대를보게되여 난산중에잇든바 지난십삼일 드듸여 부산세무서에서 양조업자총회를열고 장시간토의한결과 대세는 합동으로 기우러지고잇스나 제조업자중에는 리해가상반되는자도잇슴에따라 문제의영향범위가 광범한 것만치 합동, 비합동을에워싸고 물론이자지한데 이제각관계자의 말을들어보건대 다음과갓다

合同贊成 某談

업자가 너무만허서 경쟁이격심합니다 만일이대로간다면 양조업자가 자멸하게될것이며 그경쟁으로 말미아마 품질이저하하게되여 일반소비자에게도 손해를보게하니 이것을 방지하기위하야는 합하는것이 제일방책일것이올시다 운운

合同反對側某談

물론 근본적으로는 합동에반대합니다 그러나 이미 대세가 그러하다면 할수업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들의 자멸을의미하는 것밧게 아모것도아닙니다 요컨대 결국은 이합동으로 말미아마 대재벌의손으로 넘어가고말 것은 명약관화의사실입니다 그러나 조합원의반수이상이 반대의 의견을가지고잇스면서도 표면적으로 반대의사를 주장치못할여러가지 복잡한 사정이잇습니다 합동여하는 세무당국의강요할문제가아니며 조합자체가해결할문제임으로 반대자가만흐면 물론 합동은 되지안흘것입니다

近藤稅務署長談

글세요 양조업자간에서 합동하고자 의론을하고 잇는것갓습니다 세무서로서는 이문제에직접간섭하고잇지 안흘뿐아니라 금후라도 간섭하지 안켓습니다 합동하고안하고는 양조업자들의자신이 해결할성질의 문제이니까요 운운

東西南北四十里 府域은三、六八倍

●最初의計畫보다多少조펴서 平壤府區域擴張成案

【平壤】평양부세의 대비약적발전은 금기야 린접면을병합하지안흘수업서서 금번도초부터행정구역의확장조사를하여 칠면이십팔개리를 포함하는 대평양을 건설할 계획으로조사는 십월말에 완성을보앗는데 소림(小林)내무과장은 재등(齋藤)내무계장과 함께 방금재조사를하고잇다 그런데 총독부에서 자문해온 평양부시가지계획안에 의하면 부행정구역확장안보다 다소 범위가줄아 오개면이십륙개리를 포함하고잇고 따라서 시가지계획구획내의 행정구역의 확장을 중지할 의향을 가지고잇는 관계상 평양부에서도 보조를 맛치게되엿다 이때문에 부역(府域)은 동서가사십리、남북이 사십리로 현재부역의 삼점 륙십팔배(三·六八倍)가 되겟고 새로히 평양부가 될 지역은 다음과 갓다。

◇新編入區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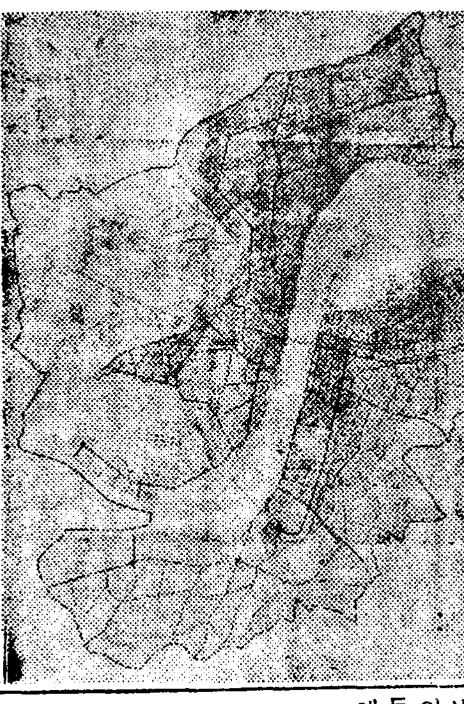
▲林原面—龍興里、미山里、淸岩里

▲西川面—仁興里、上興里、內里의一部

▲龍山面—大乾領里、堂上里、鳳林里

▲古平面—內里의一部 九井里 平川里

▲大同江面—羊角里、梧野里、貞柏里、土城里、助王里、石岩里、船橋里、將進里、佛堂里、栗里、東大院里、黍村里、衣岩里



◇寫眞은 平壤市街地計畫區域平面圖

道路改修問題로 官民의意見相峙

그歸結을一般이注視

【宣川】평북도내의국도(國道)개수는 삼개년계속사업으로 명춘부터 시작하게되여 그제일차으로 신의주에서 선천까지의공사에착수하게되엿는대 선천에서는 선천읍을 관통할국도의장소문제로 군(郡) 읍(邑)당국자와 시민측반대자가대립되여 문제를야긔하고잇다

이제그내용을들으면 선천읍을 관통할국도의 연고지(緣故地)는 상업중심지인 본정통(本町通)이엿섯는대 지난구월총독부기사가 래선하야 감정할때에는 경비기타관계상 연고지인 본정통을버리고 곡구통(谷口通)을 그중유망시하게되엿다고 한다 이를안 군、읍、당국에서는 순전히 국비(國費)로서 도로를 개수하는 이긔회에 선천읍 다년현안이든 본정통 개수를 금번 긔회에 국도로 편입시켜 긔어히개수코저 총독부에 진정까지하엿는데 이에 놀난 본정통 시민들은 자긔네의 생명선인 본정통 개수는 묵인할수 업다고결속하야 반대의사를 표명하는일방 지난 십일 오후 구시삼성(三星)시계점내에 회집하야반대자 대회까지 모히여 적극적반대할것을 의론한일이 잇섯다는데 일반은 사건의 진전을주시하고 잇다 한다 이에관하야 관계자들은 다음과 가티 말하엿다

林郡守談

시민중으로서는 대단한 오해를가지고 잇는듯 싶습니다 이조흔 긔회에 이를 반대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보아 자살적(自殺的)행동으로 볼수밧게 업습니다 그들의 각성을 바랄뿐입니다 운운

金邑長談

선천읍으로서는 다시업는 조흔긔회입니다 장차 압흐로 부(府)를 목표로 약진하는선천에서 본정통을 그냥 둔다는 것은 말이안됩니다 아모래도 개수하여야만될 본정통이니 우리는 총독부의 재단만 바랄뿐입니다

某反對者談

본정통 개수라니 말이됩니까 우리가이곳에서 온가족을 거느리고 밥을버리먹는데 만일 개수를한다면 적어도 륙칠개월동안은 영업을 못할테니 그동안의 피해를 무엇스로보충하겟습닛가 우리에게는 생명선이니 우리의 생활를보장하기위하여는 끗까지 반대할수밧게업습니다

各處에强盜騷動

兼二浦邑本町에 覆面强盜犯出現 現金四十圓强奪、逃走

【兼二浦】요사히각지 강도사건이빈발하야 인심을 흉흉케하는 이때에 겸이포읍내에 강도사건이 발생되엿다

지난 십륙일오전세시반쯤되여 겸이포읍본정(兼二浦邑本町)백삼번지 재로상하는 김인용(金仁容)집에 복면모자(目出帽子)를쓴괴한한명이나타나 주인 김인용이를 깨우고 현금을잇는대로청구하야 주머니에 너허두엇든사십여원을 강탈후 유유히퇴문으로도주하엿다한다

정보를들은 겸이포경찰에서는 즉시로 경계망을느리고 국도로 긴장리에 혐의자들을 검거하는중인데 십륙일낫까지 이러타할 무엇을 발견치못한듯하며 일반 시민은 때가때이니만치 매우긴장되여잇다한다

黑橋面에도覆面强盜 短刀로脅迫奪金

【海州】십륙일오전다섯시경 황주군흑교면청천리(黃州郡黑橋面淸川里)김명기(金明基)(?)씨 집에도 역시복면한 강도한명이드러와 회중전등과빗 사오촌가량의 단도(短刀)로서 전긔주인을위협하고 곡갯든돈을부터 현금사십원을강탈해가지고 어듸로인지 종적을감추엇다 불과한시간동안에 두가지의복면강도사건이 흑교면에서 발생하자 소관 황주(黃州)겸이포(兼二浦)양경찰서에서는 비상소집을하고 사방으로 출동하야 비상경계진을 느리고 범인수사에 전력을다하고잇다

富興講習所 校舍新築落成

【新高山】함남 안변군 위익면하부평리(安邊郡衛益面下富平里)에잇는 부흥학술강습소(富興學術講習所)

慘! 目不忍見의 殺害現場光景!

屍體는發見即時解剖에부처 神人共怒할此犯罪 牛車夫慘殺事件續報

【平壤】루보 암흑의장막이 대지를덥흔후 일오후 열한시경중화상원가도(中和祥原街道)의 동편인중화군풍동면풍성리(中和郡楓洞面豐盛里)밧가운대로 우차부를 유인해다가 독긔로머리를 함부로찍어참살하고 수수집으로덥허노흔후 소를강탈한 희세악독한 강도살인범 평양부내 선교리(船橋里)팔집이번지 김효민(金孝敏)(三六)은 뻔뻔스럽게도 피해자우창원(禹昌元)의딸의 결혼식에까지 참석햇다가 다라나고마러 방금수사를계속하고 잇거니와 아들과 공모하여 번연히 자긔의아들이 사람을죽이고 강탈해온소인줄을 잘알면서도 그 소를파읍(破邑)시장에까지가서 팔십원을받고 파려왓다는 범인의친부김은일(金殷日)(六三)을 안내자로하여 십륙일아침 평양서사법계리(李)경부외 십수명의형사대가 범행현장이라구 생각되는 중화군풍동면(中和郡楓洞面)부락민들을동원시켜 시체를 대수사한결과 작보와가티 십륙일오후여섯시경에 우창원이가 행방불명된후 십일일만에 참살된시체가발견되엿고 따라서 피해자의검은중절모자、흰고무구두、소몰든채쪽、사과한개、현금일원도발견되엿스며 거긔에서한마장가량떠러저잇는 릉성시장(陵盛市場)입구에서 피해자의우차(牛車)와 흉긔인독긔도발견되고마럿다 시체는 현장에서 평양의전구보(久保)박사의집도로 해부에부친결과 범행시간은 륙일오후열한시전후로상상되여 이날오후다섯시삼십분경 피해자가 집을떠날때에 점심을 먹은후 아모것도먹지못한채 감한상원가도를지나 흉행장소에까지 갓든모양이어서 배가운대에는 아모것도 드러잇지안헛스며 해부의결과 뒤에서 독긔로 후두부(後頭部)에치명의일격을가하여 꺽구러지자 련하여머리세곳을 찍어잔학한살해를한것으로 시체는 십일일동안이나 들쥐(野鼠)가 뜨더먹어 후두부는 원형(原形)을 알수업게되엿고 뇌장(腦漿)도 모조리먹어버려 부근의 흙을 붉게물드려 노흔검붉은 선혈과가티 실로 처참한 광경을 보혓다

極凶의犯人踪跡 依然五里霧中

平壤署員猛活動繼續

우창원의시체는 오후세시경에 해부를마치고 부근에서 통곡하고잇는 가족들에게 인도되여평양에운반하여다가 장사를지내게 되엿는데 해부에 립회했든 평양서사법계 리(李)경부와 중화서(中和署) 김(金) 사법주임도 경관생활십여년동안에 이러틋잔혹한살해를 한것은 처음이라는 이야기로보아 그정도를 충분히 짐작할수잇거니와 돈팔십원때문에 한생명을 참살하고 범인도 체포되면 교수대에 오르게 되엿스니 돈이더럽고 무서운 것임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한다

그런데 피해자의 집에서는 여섯가족의 호주(戶主)가 되여잇든우창원의 비참한 최후로인하야 업동을 직면한 금후의 생도가막연하니 더욱범인의 소행이 밉기짝이업다

범인은 십이일경 평양을 탈출하여 만주봉천(奉天)방면에다라난흔적이 력연하여 평양서임(任)부장이 출장하여 수사중이나아직까지 잡엇다는 소식이업서서 평양서에서는 이흉악한범인을잡어 피해자의 령을 위로하고 사회의 불안을 일소코저 최후의마력을 내이고잇다한다

牛密輸船이顚覆 二名一時溺死

碧潼前江에서생긴慘事

【碧潼】만주국 비적토벌정책으로 지정지집단부락을 조성하는 일방산재한농가는 일일히불살러 먼곳으로부터 비치어오는 충천한 화광을 국경일대에서는볼수잇는바 이로말미아마 쫏끼는 농가에서는 소(牛)를 아조헐가로방매하야 이긔회를타서 소(牛)밀수사건이 점점느러 지금에는매일가티 밀수단발각사건이 생긴다는바 지난십사일오전한시경 밀수단 김경태 김동석두사람은 소아홉마리를 만주에서사서 리란극(李蘭基)(三一)손덕성(孫德成)두사람을시켜 벽동압 압록강을건너 월경시키라고하다가 강중에서 그만 이네사람이탄배가 복선이되여 무참하게도 리란극 손덕성 두사람은 일시에 몰사하고말엇다는데 간신히 목숨을건진 김경태 김동석두사람은 당지경찰서에 체포한바되여 목하취조를밧는중이라고한다

地方人事

▲島作治氏(前兼二浦公普校長)辭任人事次本社兼二浦支局來訪

▲崔在翕氏(前報恩郡守)堤川郡轉勤人事次 本報報恩支局來訪

海州 經濟問題大講演會

▲時日 來二十日午後七時半

▲場所 南本町禮拜堂

▲演士 本社主筆 徐椿氏

▲演題 經濟界의動向

◇主催 海州商工協會

◇後援 朝鮮日報海州支局

吉州邑에火災 損害約千餘圓

明月館이全燒

【吉州】지난십오일 오후륙시반경 길주읍서문외 료리업 명월관에서 불이일어나서 일대소동을 이르키는중 급보를접한 소방조원급 경찰서원까지 총출동하야 필사적활동으로 동칠시반경에 진화되엿는데 발화원인은 부억에서 휘발유풍노에 점화하엿다가 폭발한것으로판명되엿스며 손해는 약천여원가량외에 동관외상문부(約千五百圓)전부가 소실되엿다고한다

「숫」냄새에窒息 菓子職工即死

【會寧】지난십륙일오전 십일시경에 회령읍수정통(壽町通)평인지점(平仁支店)에서 과자를 만드느라고 숫불을너무 만히 피웟기때문에 직공심상은(沈相恩)(一八)이가 숫내에 취하야 그냥죽고마럿다는데 그의신변에는 열여덜살 먹은어린자식한아바게업다고한다

全州署에打盡 「모히」密輸者

【全州】근일전주서 위생계에서는 모히밀매자수명을 체포하야 엄중취조를 하는중이라는데 듯는바에의하면 전주부완산정오십오번지 안선길(安善吉)(?)과 동정오백사십구번지 김진(金振)(?)은 신호시림전구(神戶市林田區)본정 이정목이백삼십번지(三〇)최오진(崔吾振)방에 거주하는리명수(李明洙)(?)와동거하는조갑수(趙甲洙)(?)두사람과 련락하야 매월오륙회식 편지속에다 모히를 이삼구람식너허 밀이입(密移入)하야다가 그간백여회나 완주군내(完州郡內)모히환자 십여명에게 분매하여왓다는데 따라 범죄사실이 전남각지에까지 확대될는지도 모른다고한다

商業水産校設置를 學務局長께陳情

府尹、商校期成會側서

【群山】방금 군산중학교(群山中學校)에서 개최중인 전조선중학교장회의(全朝鮮中學校長會議)에 참석차로 래군한 부영학무국장(富永學務局長)에게 좌등(佐藤)군산부윤급 군산상업학교설치기성회(群山商業學校設置期成會)관계자들은 상업학교(商業學校)급관립수산학교(官立水產學校)설치에 대하여 진정이잇섯다한다

吉善市民의宿望 電燈架設實現

【吉善】장연군속달면래라지(長淵郡俗達面來羅地)(吉善市) 전등가설문제에대하야는 긔보한바와가티 려면 시민대표로 해주서선전긔회사지점장리승회(李承會)씨외륙인이 방문하고 래란전등가설문제를요망한결과 즉시전등가설에착수하기로 해결이되야 일방전등점수를알기위하야 신청을모집한바 일천여십여등의신청을 밧게되엿는데 아직도 신청자가 만타는바 전긔회사당국에서는 시급히 공사에착수할예정이라고한다

【新義州】…는 화재에 매우 불완전하야 일반에게 유감이만흔바 근방에 잇는 유지들의 주선으로 일천오백원의 의연금을 어더가지고 훌륭한 소방자동차로 구입하기로 되엿스며 … 락성식을 거행한후 당일에 운동회까지 한다고한다

忠北線列車內盜難

【淸州】충북선(忠北線)화물렬차내에서는 도난사건이 빈번히발생하야 그피해가막대하야 운송업자와상인가의 머리를알케하고잇다 지난십오일오전열한시반에 도조치원방면에서오는화물렬차가 청주역에도착되엇슬때 청주모운송회사인부가 그직업을 리용하야 청주모상회로오는 메리야쓰를절취하고잇는것을 맛참그렬차 차장이발견하엿는데하며 청주역장은 그자를경찰에돌려보낸다고한다

呼吸器·結核症

呼吸器病은 恒常身體虛弱의 間隔을타서 侵犯하는것으로、可恐할肺結核의 初期徵候는 貧血·羸瘦·盜汗·微熱·食慾不振·咳嗽喀血等입니다。以外에肋膜炎·腹膜炎을 併發하는일도잇습니다。實로이早期結核期야말로 健康을恢復할수잇는 黎明期입으로、이時期를일치말고、銳意治療에全力치안으면 後患을免치못하게됩니다。

이가장有効한 藥餌療法으로、네오톤을 服用하면、結核에對한治療的効果及抵抗力을 亢進시키는作用과 食慾을增進하며 胃腸의醱酵를防止하며、咳嗽를鎭靜하고 祛痰하는効力이有하며、中樞神經을刺戟하야 生活機能을向上식히며、細胞新陳代謝를 促進식히는効能에依하야、結核을全治케합니다。本劑의効果는醫師에게問議하시면잘아실것입니다。

全國有名藥房販賣 文獻及說明書進呈

네오톤 直輸入發賣元 株式會社 柳韓洋行 京城·大連·上海

●工夫中 ノーシン 머리가명하며 몸이신기하야學習이 안될때는곳 ◆大原大學이 가요하고 明快하게 고되오여 잇는 藥에어떤가시

マツミ香油 ポマード

漢城銀行

信用잇는最高의會社는大事業을 躍進 조흔家庭工業 第一 第二參拾萬圓 株式會社

文具卸商 株式會社 彰文堂 京城仁寺町電光七三八 振替京五〇九五

렴질藥은 ネオヂリン

弊店創立五週年記念大景品付大賣出 セイコーシャ地方時計部 東京市淺草區上野三ノ六一七(振替東京八二四五四番)
時計の王 タバン・ウオルサム・エルジン
クロム側ウオルサム懷中 クロム側タバン懷中 クロム側懷中 クロム側腕卷 十八金HK側腕時計 十八金HK懷中時計

光武劇場 十一月十八日부터二十三日까지 山의王者 エノケンの魔術師 歌ふ彌次喜多

第一劇場 時代名篇 思ひ出の二とや日記 文藝劇 復活 戰爭活劇 珍勇凱旋 電話光化門一七五五番

中央館 十七日ヨリ二十日マデ四日間 陽氣な春 輝く瞳 一平手酒造 第一回 一、三〇 第二回 三、三〇 第三回 六、五〇

內外經濟諸問題

● 小汀氏座談會 問答內容

中外商業新報經濟部長 小汀利得氏를中心으로한 座談會는 十七日午後四時 京城商議會議室에서열린바 參席한諸氏로부터 小汀氏에게 質問한데對하야 如左한應答이잇섯다。

▲軍備擴張과日本의將來=世界的軍擴인 이때에잇서 日本도 軍擴이 大勢인데 그것도 財政을 破綻시키는 것이라면 反對할일이나 그러치안코 軍擴은 貿易擴充, 重工業發達, 外交上地位優勢를 與케되는것이니 絕對必要하다。

▲戰爭은 宣傳뿐=今日獨蘇國交斷絕을 傳하야 日本의株式이 暴騰된모양인데 國交斷絕即戰爭으로알어서는 認識不足이다 國交斷絕後半年쯤內外로 宣傳하야 다시妥協할지도 모르는일이니 戰爭은 업다。「히틀러」는 四年計劃經濟에 餘念이 업는때이니 戰爭을할수업슬것이다 하얏슴을보아도 世界各國이 모다戰爭은 말할수업고 오 眞心으로 조하하는것은아니다。

▲軍擴과 經濟界=日本의軍擴이 經濟界에 어떠한 影響을줄가? 이미 發達된 軍工業特히 紡績가튼것을 午後二時라고말하는사람이잇스나나생가은 午前九時나 午前十一時밧게안되는것으로 아프로더發達될것이며 重工業은 軍擴으로大發達될것인바 如斯하야 購買力이 增進되겟스며 農村은米豊作、蠶繭高、小麥高等으로 亦是購買力이 대단히조하질것이다 生絲、綿絲、人絹等 모다好調로서 景氣는 底力이잇다。

▲證券界前途=株價는 現在高位에잇서 사기어려운것이잇스나 金利水準으로보아 더올라서 利廻水準을 低下식혀야하겟다 十月一日現在 勸銀調査에依한 利廻는 國債三分九厘四七、社債四分三厘五四、株式五分四厘七인데 이것들이모다 高利廻條件일 大勢의것으로서 株式의前途는 强한反撥力을가지고잇는것으로보아 비록 今月末에 賣方이 아즉안타래도 結局上伸로打診하겟다。

▲金利低下限度=金利低下의 限度라는것이 업는것이나 金利의標準이될 公債의利率은 大藏省方針으로는 明年까지는 三分五厘를 維持할것가리보인다。

▲產業統制=產業統制는業界에서好不好如何를不拘코 統制不可의 方向으로 가리放任은 되고 現在와가튼 形勢의 樣太로 되거이데 實際方法에 産業統制가 法的統制로進行가 잇고 또民間團體의 統制도 잇서서 一層强化할수업스나 互讓以外에는 經濟問題를 解決할方法이업다。朝鮮適用問題도 勿論統制가 必要한터이나 朝鮮서 統制를버서나서는 안된다는 말이지 決코日本內地의統制를그대로하라는말은 아니다。要는朝鮮의特殊的 統制로써 朝鮮의 產業을保護하여야할 일이다。

▲東新株不安=五十圓臺拂込인東株보다 三十七圓五十錢 拂込인東新의 株價가놉다는것이 東新不安의 問題인데 이에對하야 思想上 자미업다는 議論도 잇는모양이나 東新은 오르는 것이 하면 1、歷史的으로 日本國力代表株로서 東新에 投資가 集中되엇고 2、有價證券三百億(國債를合하면 四百億)에 對한 實需物로서 3、新株는 株價國內에서一步를不出하나 東新은그럴치 아니하야 東新이 東株보다 此等에依하야 法令으로禁할수도 업는것이오 實際賣買에잇서 株價가 其後에 올것이니 賣株를 대신渡株하자고하야도 안되는것이다。이런問題는 是非善惡을 論할것이 아니오 東新의 傳統的 觀不可하야 訂正할수업다。

▲對滿投資=日本의 對滿資本 投資는 來十一億을 投資하고 每年二億乃至二億五千萬圓식 投資하는데 近者이것이 沈靜되엇다는 事實로 신지게=圓에서는 消極的인모양이나 느는現狀으로 對滿投資도 積極的이아니나 財政上으로 對滿投資가 減額될 豫想은 맛지아니하고 今後는 新規投資의 工作인 進出時代로서 徐徐히 다시擴調될것이다。

都市의住宅地 地價顯著昂騰

各都市의市街地計畫進行으로 金融警戒點에接近

朝鮮內各都市의 市街地計畫進行에依하야 最近各都市의 住宅地價의 昂騰이 顯著하야 一部金融側에서는 警戒指標를 發코잇다한다 即計劃設定에 依하야 從前坪一、二圓程度의 地價가忽然一躍十圓乃至二十圓으로飛躍하고 이金融은 極히 寬大하게取扱되는觀이잇서 明白히 警戒點에接近하얏다한다

北平朝銀支店 中心銀行資格

朝銀의 北平支店은 明年一月부터 營業開始에 入할터인데 同支店의 創始는 北中의 經濟安定勢力으로서의 朝銀의 進出로서 國策的으로보아도 重要意義가잇다한다 即 北中의 金融體系의 整備確立의 使命을 帶한 冀東銀行에對하야 新設의 北平支店은 親銀行的立場이되고 正貨準備充當의 預金을引受하며 資金提供의役割을遂行하야 金融工作의 指導的役割에當할것이다 그리고 既報青島 天津支店擴充도 이에關聯한것이라한다

朝銀支店課長更迭

朝鮮銀行에서는 稻崎支店課長以下의 滿洲某銀行入에伴한 異動을 十八日附로서 如左히行하얏다

京城總裁席支店課長 稻崎 文彌
京城總裁席勤務를命함
新京支配人 櫻澤秀次郎
京城總裁席支店課長을命함
新京支配人代理 久芳 亨介
新京支店支配人心得兼新京總裁席總務課長心得을命함

對外貿易進展 商工外事聯繫

產業의發達은 必然的으로對外貿易의進展을 招致하는것인데 總督府에서는 殖產局產業經濟調查會의決定에基하야 對外貿易進展의具體策을 樹立키로되어 殖產局商工課와外事課와緊密한連絡을取하고 對滿貿易에關한 協議도 宇佐美奉天、佐藤哈爾賓兩總領事를 交하야行하얏는데 商工課에서는今月末歸京할 相川外事課長의 歸任을기다려 兩課의協議會를 開하고 海外貿易全般에亘한 具體策을 協議하고 漸次 準備計畫을進하야 一貫한具體案을 作成코저 準備中이라한다

北中棉作에 東拓이進出

北中의 棉業開發은 重大案件이 되어잇는데 東拓에서는 裕大紡 寶成紡의 合併으로 紡績業에 進出하는同時에 棉花栽培에積極的計畫을進行하기로되엇다 即 東拓에서는 압서 西原借款當時에 北中에 裕農, 裕華兩公司의 農場을所有하야 二千七百町步의耕地를 가지고잇는데 다시 요지음 三千五百町步의 新規擴張을 行하야 大大的으로 棉花增產에 進出하기로되엇다 그리고 紡績은 寶成을 買收하야 裕大紡과 合併케해서 十五萬錘의 大工場으로할豫定이다

朝窒「아루미」 明年부터着手 ◇野口社長談

入京中인 野口朝窒社長은 十八日 同社 諸問題에 關하야 如左히 말하엿다

當社의 아루미 事業은 目下 興南에서 工場을 建設中인데 近近 竣功될 것이다 全南의 明礬石을 原料로 年產二千噸의 計畫이다 明年부터 製造에 着手하게 될것이다 肥料統制法의 問題는 이미 明白하게된 程度이어서 先約不振도 그다지 憂慮할것이 업다 實需期에 들어가면 問題는 解消될 것이다 黃水院水電은 明年初에 着手할터이다

貯銀木浦支店好績

貯銀의 木浦支店은 十六日開業하얏는데 第一日 成績은 普通、特約據置貯金 合計六百三十六口 二萬九千五百八十六圓으로 殖產積金契約은 十二萬圓에 達하얏다한다

取引停止 (十一月十四日)

▲絹布綿紬貿易業 京城府鐘路三丁目一五 崔秉奭 ▲京城府明治町二丁目 月本邦雄

越年의金融警戒

◇……金融情勢硬化로

朝鮮內의 金融市場은 日本內地短資市場을 中心으로한 金融情勢가『골』의 引締와 年末資金準備 政府支拂의 不明瞭等에依한 金融硬化를 移하야 越年金融에對하야서는 警戒氣分이 濃厚하고 證券金融도 幾分引締되는傾向이잇서 日本內地市場의 政府資金散布가 行치안는限 이傾向은 繼續될것으로 觀測된다한다

預金減少 貸出增加 月央組銀狀況

十一月十五日現在=京城組合銀行 預金貸出狀況은 預金一億二千九百八十九萬六千圓으로 十月末日現在에 比하야 六十二萬二千圓 減少 前年同期에 比하야 八百九萬三千圓 減少이며 貸出은 一億九千二百二十一萬五千圓으로 十月末現在에 比하야 二百三十三萬七千圓 前年同期에 比하야 四千四百一萬七千圓 增加를 示하얏다

證券所持不變

證券所持不變=十一月十五現在 京城組合銀行의 有價證券所持는 二億七千四百八十萬五千圓으로 前月末現在에比하야 一萬四千圓減少 前年同期에比하야 七千九百五十七萬五千圓增加이다

土木建築協會에서 請負契約改善建議

京城土木建築業協會에서는 陣容을 一新하얏스므로 業界의 更生에 進出키로되어 그第一着手로서 請負契約의 改善問題에 對하야 研究中이다 即 現在의 請負業者對 企業官廳의 請負契約은 一種片務契約으로 業者의不利한 點이 不少하다 例컨대 法文上으로는 天災地變에 依한 損失補償이 完全히 認定되어잇음에도 不拘코 實際問題로서는 業者가 損失을 負擔한다는 實情이므로 如斯한 點에 對하야 不合理性을 訂正하고 業者에 對한 不利한 程度를 緩和하자는 意向下에 目下 日本內地의 請負契約書 其他를 參考資料로서 募集中으로 研究後는 改正意見을 總督府에 具陳建議키로되엇다

復關稅制度

朝刊既報=東京電話에 依하면 大藏省은 復關稅制定法을 來議會에 提出하리라傳하는데 復關稅制度란것은 二國條約의 關稅率을 定하야 互惠 最惠國條款을 許하는 國家에는 低率을 無條約國에는 高率을 適用하는 制度이다

北滿特產 北朝鮮에殺到

北滿特產의 北朝鮮經由輸送은 旣報와가티 本期부터 本格化를 期待하든바 果然 十一月中旬부터 北滿特產豆粕의 氾濫的인 出荷가 잇고 船腹過剩이던 商船朝郵의 各船腹은 超滿船狀況이라한다 朝郵에서는 目下 五千乃至六千噸의 大型船配船을 急히하고 商船의大型船配船을 ...

茂山鐵鑛開發決定

三菱鑛業이採掘, 日鐵에서買鑛 清津에熔鑛爐設置

【東京電話同盟】商工省과 朝鮮總督府間에 折衝中이던 茂山鐵山開發問題는 總督府의 殖產局長이 東京에와서 過般來 連日協議한바 商工省側의 讓步에依하야 根本方針에對하야 兩者意見이 一致되엇슴으로 具體的 細目交涉에 入하기로되엇다 即 三菱鑛業에 採掘을 擔當케하고 이에伴한 熔鑛爐는 日本製鐵로하야금 清津에 建設케하자는 朝鮮總督府側의 主張에 對하야 國防上 產業上 見地로 商工省에서 反對이엇스나 總督府側의 態度가 豫想外로 强硬함으로 決裂을 避하기爲하야 讓步하기에 至한것으로 兩者間에 意見이 一致되엇다 根本方針은 極秘에附하나 大體 如左한 內容이라하며 從來 境遇에 依하야서는 이미決定한 日本製鐵의 擴張計畫도 이에伴하야 一部變更하게될모양이라한다

▲茂山鐵山開發方針大綱

一、茂山原鑛採掘은 從來대로 三菱鑛業이 擔當케하고 日本製鐵間에 買鑛契約을 締結케함
一、日本製鐵은 朝鮮總督府의 北朝鮮開發政策에 對應하기爲하야 北朝鮮地方(清津豫定)에서 熔鑛爐를 建設함
一、이에對하야 朝鮮總督府는 茂山古茂山間鐵道及 清津港의 改修를함

重要商品界事情

十月綿布輸出 金額顯著減少

總工聯調査=十月中의 日本綿布輸出高는 九月分의 增加의뒤를바다 繼續하야 好調를밟어 數量二億三千四百八十九萬一千平方碼、金額四千三百六十三萬一千圓으로 前月에比하야 數量六·〇二퍼센트 金額八·三三퍼센트가 모다增加를示하얏스나 一月以降累計는 如左하다 (單位一千圓、一千平方碼)

	今年	前年同期比較
數量	[illegible]	[illegible]
金額	[illegible]	(減) [illegible]

으로 數量에比하야 金額의減少가 顯著하고 市場別로는 埃及 英印 比律賓 이란 中國 蘭印等이 著減하고 埃及以外의 阿弗利加 歐洲 滿洲國 米國等에는 增加를示하엿다 그런데 今後二個月이남은 今年內의 輸出高總額은 大體九年度의 二十五億七千七百萬平方碼 四億九千二百萬圓과 十年度의 二十七億二千五百萬平方碼 四億九千六百萬圓의 거의 中間 廿六億五、六千萬平方碼程度로 推算되는데 輸出內容의 低下로 金額은 四億七千萬圓가량으로 激減할것이라고한다

人絹錘數激增 新記錄을示現

新錘制限規約에 依한 新錘設期限인 十月末現在의 人絹聯加盟二十一社의 總據付錘數는 四十一萬九千二百八十一錘로 前月에比하야 實로 五萬四千百四十八錘의 激增을 示하엿다 이는 十一月以降의 新錘에對해서는 거의 禁止的인 加重賦課率이 賦課되므로 各社가 그以前에 權利로 認定된 增錘計畫의 完成에 馬力을加한 結果로 一個月의 增設로서는 實로 記錄的인 數字인데 二十一社中 權利의 一部를 放棄한것은 日淸紡 岸和田 人絹富士紡績의 三社合計 千六百錘에 不過하다 이리하야 十一月에는 十月에比하야 約三萬三千錘가 더만히 運轉될터인데 新錘의 能率이 니즈것等을 考慮하드라도 實際增產은 一萬五千函가량에 達할것으로 보인다

株式

一息後에 鈍狀

前場鈍狀 昨後場一息商狀으로 止揚한 市場은 今朝에는 新取八十八圓八十錢 鐘新百七十九圓九十錢 東新百四十一圓五十錢 日產八十四圓丁에 各各寄付되엇는데 昨前場暴發後의 反動으로 少押商狀裡에 推移되엇스나 形勢觀望裡에 積極行動에 나서지안는것만큼 모다 鈍狀을 繼續할뿐이어서 結局 東新百四十一圓五十錢 日產八十四圓三十錢 朝新三十五圓六十錢에 各各大引되엇다

▲東新 一四五(寄) 一四五 一四五 一四五 一四五 一四五(引)

後場保合 後場은 東新百四十一圓四十錢 日產八十四圓丁 鐘新百八十圓二十錢으로 保合이다

商況 【十八日】

經濟寸鐵

○都市住宅地過騰으로 金融界에서는 警戒 當然하일
○短資引締로 京城도 越年金融警戒 但大勢는 悲觀不要?
○日本品防過對策으로 複關稅制度를 採用하리라고
○關稅戰은 去益白熱化 世界通商會議나 바랄가?

月末金融注目

測驗關係者는 材料다툼이 ... 市場에 東新傷發을 告하기는 하엿스되 이것이 반듯이 戰爭을 豫想한 行動이 아닌것은 ... 最近의 動向으로서 市勢도 무를수잇스므로 ... 最後의 局面에 到達치안는다고 반듯이 急激한 反動할 것이 매우 疑問이다 웨그러냐고하면 이번의 歸上은 말하자면 面情으로 雜株軟化의 兆候 ... 新이低落되엇스나 그反動은 猛烈한 株의 뒤라고 反動은 期待하더라도 ... 踏反動까든 反動은 엇을것이나 다만 지금에하나 注意할것은 月末金融의 硬化模樣이다 即 年末決算을 爲한 準備上 銀行方面에서 어느程度의 融資를 할는지 매우 疑問인바 月末金融에 警戒할 必要가 잇다 硬化라는데는 株界의 活潑한 活動은 期待할수업슬것이므로 月末當限의 去就와 함께 注目을 要할바이라고한다

雜株의今後觀

再昨前場에 日本電工의 暴落과 함께 軍需株 重工業株等이 一齊低落하엿는데 傳하는바에 依하면 軍需工業에對해서는 軍部가 今後 配當을 制限할 방침이라는 風說이 돌아 從來의 高率配當은 不許되리라는 豫想下에 不安人氣가 漲化한때문이라고하고 一方으로 四相會議에 論議된 經濟參謀本部의 課가 그로 機關이 設立된다면 經濟政策의 一大轉換은 不可避니 强力的인 國家統制下의 產業 全部門은 再檢討될 必要가 잇스리란 說로 多少 不安을 부른 모양이나 軍需株、重工業株에 對해서는 循環的으로 擴張의 一路를 밟는 世界的 軍擴의 傾向으로 보아 絕對로 短時日에 終熄되지 안흘것인 만큼 配當 制限이 잇더라도 前途洋洋타 할것이며 紡績株는 綿業의 現狀과 中國의 購買力增大 擴充等에서 悲觀될것이 업고 人絹市勢로보아 人絹株前途도 有望하다할것이니 特殊事情下에잇는 電力株等 以外에는 今後에도 繼續 好調를 밟으리라고한다

東京國債市況

【東京電話同盟】米貨債도 漸次 安定狀態가되어 市場의 人氣는 相當히 平靜에 歸한모양이다 다만 年末金融도 잇기때문에 新規買物이 적어 第三回五分 第二回四分은 五錢低의 軟弱을 示하엿다 佛貨는 米貨에 追隨되어 小戾하고 米貨는 六分半 五分半共히 七十錢高를 示하엿다

大阪國債市場

▲甲五分利 一〇〇三二 ▲第三五分 一〇〇七八 ▲一回四分 一〇一〇五 ▲二回四分 一〇一〇五 ▲佛貨 一九五五〇 ▲米貨六分半 三五二五〇 ▲滿洲公債 一〇〇二〇 ▲一回四分 一〇〇、二五 ▲二回四分 一〇〇、八〇 ▲佛貨 一九五五五

期米 閑散裡에 膠着

前場保合 昨後場阪地二十九圓三十五錢止와 共히 二十七 ...

全혀膠着狀態 硬軟材出盡으로

新甫一月限이 誕生된後 政府米四十餘萬石의 賣却이잇섯스나 此에는 何等의 影響이업고 新落하엿는데 傳하는바에 依하면 米四十餘萬石決定에는 既然撈材化하야 買氣를 助長하엿을뿐이니라 一時 朝鮮米 第一回豫想의 減收說에 더욱 勝勢를 添助하더니 其後 朝鮮米豫想의 豫外樂觀發表와 日本內地米豫想의 減收發表임을 딸아 市勢는 一弛一張으로 旣히 行動을 一巡하엿다 그런데 昨今의 米界의 情勢로는 이러타할만한 强腰材가 업스므로 兩派도 또한 賬入的行動을 加하지못하고 動機를 待할뿐이며 市勢도 全혀 膠着狀態를 呈하고잇다 果然 產地農家의 態度가 短期貯藏의 實施를 待하고 집짓 賣惜하고 잇는지는 몰으나 米穀自治管理의 發動時期를 到來하기前에 處分할傾向은 미리 먼저 賣却하려하는 傾向도 업지아니하므로 아프로 大勢가 반드시 昂騰할것이라고도 謂키 難하다 今後果如何?

後場軟化

前場二十七圓三十九錢에 寄付後 二十七圓三十六錢까지 下押하엿다가 九圓三十七錢까지 返戾하엿다가 三十四錢에 止하엿다 後場은 三十六錢으로 阪地 ... 一丁高로 寄付한後 二十七圓三十八錢으로 結局三十五錢에 止하엿다

朝取期米取組內容 (單位百石)

堂島前場情報 【電話京電】

當地出廻漸增 賣買依然閑散

最近群山市場에는 玄米의 出廻가 每日三十餘車에 達하야 好況을 呈하야 旣히 阪地의 市勢에까지 影響을 與하야 一段低落을 告한바 昨今에 入하야는 當地出廻가 漸增하야 三萬餘叺에 達한 자못 出積의 狀態에잇서거니와 賣買만은 依然 閑散할뿐이다 要하면 日本內地 先安觀으로부터 買氣가 떨어진 ...

米 ……때가때이라

新穀은 仁川埠頭에 推積한 正租가 三萬餘叺 ...

株 ……月末金融硬化는

六感

各地正米

京城不變 商上念慮와 環境不勢로 賣買不振하야 市況은 ...

仁川保合 人氣는 彌漫하야 低迷不振으로 賣買는 極히 不圓 ...

釜山崩落 日本內地賣行 ...

大邱不冴 出廻低調 ...

群山堅調 依然 日本內地 ...

木浦强調 出廻低調 ...

今日財界 (十八日)

米 京城正米 (十八日)

金融 (十八日)

◆海外經濟◆ ◆朝鮮銀行券◆ ◆日本銀行券◆ ◆東京金利◆ ◆大阪金利◆ ◆對外爲替◆ ◆金塊入價◆ ◆東京市中金融債◆ ◆京城市中金融債◆

[illegible]

京城綿糸布市勢 (十八日)

京城絹布

京城油沖價 / 滿洲粕沖價

株式 (十八日)

◆朝取短期◆ ◆大阪短期◆ ◆東京短期◆ ◆東京現株◆ ◆朝取短期實買高◆ ◆大阪長期◆ ◆大阪短期取組◆

[illegible]

期米 (十八日)

◆仁取期米◆ ◆群山期米◆ ◆釜山期米◆ ◆大阪期米◆ ◆木浦期米◆ ◆東京期米◆ ◆大阪正米標準價◆ ◆大阪期米取組◆ ◆大阪市中在米高◆ ◆新取期米賣買高◆ ◆日本各地期米◆ ◆各地正租市勢◆

[illegible]

商品 (十八日)

◆大阪綿糸◆ ◆大阪棉花◆ ◆各地人絹◆ ◆大阪砂糖◆ ◆海外砂糖◆ ◆大阪人絹◆ ◆生糸◆ ◆日本麥粉市勢◆ ◆外國豆期米◆ ◆滿洲商況◆ ◆大連特產市勢◆ ◆安東豆粕◆

[illegible]

期米 東 趙後鎬取引店 仁川海岸町三丁目

米 仁川 康益商店 株 金益證券

仁川 期米 大 マルダイ トリヒキテン

全北朝鮮紙 特產物 品質優良 極利多賣 一手販賣元 全州 朝鮮紙業株式會社

株式 期米 玉 柳來恒取引店 仁川本町 京城本町

金.銀.白金 德 京城德力 地方注文 賣買仲介金代引受 料金先送要 京城府明治町 電話本局②3939 振替京城2 3 4